소가야문화제 재정립 및 발전방안 연구

2017. 06

고 성 군

제 출 문

고성군수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관이 본 연구원에 연구 의뢰한 「소가야문화제 재정립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06월

경남발전연구원
원장 유 성 옥

본 과업에 참여한 연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책임

한 상 우 경남발전연구원 조사연구위원

공동연구

김 미 영 경남발전연구원 조사연구위원

여 두 임 경남발전연구원 전문조사원

목 차

Contents

제1장 과업의 개요 ····· 1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3
   1) 과업의 배경 ····· 3
   2) 과업의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방법 ····· 4

제2장 소가야문화제 기본현황 및 여건 분석 ····· 5

1. 고성군 현황 및 각종 여건 분석 ····· 7
   1) 연혁 ····· 7
   2) 위치 및 행정구역 ····· 7
   3) 재정자립도 ····· 9
   4) 인구현황 및 특성 ····· 9
   5) 역사문화자원 기본현황 ····· 12
2. 소가야문화제 기본현황 ····· 14
   1) 행사개요 ····· 14
   2) 행사 주요내용 ····· 15
   3) 행사장소 및 기간 ····· 16
   4) 역대 소가야문화제 행사 개최현황 ····· 17
   5) 행사 주관 ····· 18

제3장 축제 이론적 접근 및 사례 분석 ····· 19

1. 축제 이론적 접근 ····· 21
   1) 축제의 분류 ····· 21

2) 축제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 ····· 22
3) 축제 최근 트렌드 이해 ····· 22
4) 축제 주요현황 ····· 23
2. 국내 유사 축제 사례분석 ····· 28
1) 경남지역 유사 축제 사례 ····· 28
2) 국내 유사 축제 사례 ····· 48
3. 관련 사례 시사점 ····· 63
1) 사례 시사점 ····· 63
2) 소가야문화제에 대한 시사점 분석 ····· 63

제4장 소가야문화제 현황 평가 및 설문 분석 ····· 65

1. 소가야문화제 현황 분석 및 평가 ····· 67
1) 소가야문화제 현황 분석 ····· 67
2) 소가야문화제 SWOT 분석 ····· 70
2. 소가야문화제 설문조사 분석 ····· 71
1) 설문조사 개요 ····· 71
2) 설문조사 결과 ····· 73

제5장 소가야문화제 재정립 및 발전방안 ····· 87

1.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89
1) 기본방향 ····· 89
2) 추진전략 ····· 89
2. 소가야문화제 재정립 및 발전방안 ····· 89
1) 소가야문화제 행사 운영 개선·발전방안 ····· 89
2) 소가야문화제 행사 내용 개선·발전방안 ····· 97

참고문헌 ····· 115

표 목 차

Contents

(표2-1) 고성군의 위치 ····· 8
(표2-2) 고성군 연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 9
(표2-3) 고성군 읍면별 인구현황 ····· 10
(표2-4) 고성군 문화기반시설 현황 ····· 12
(표2-5) 고성군 지정문화재 현황 ····· 12
(표2-6) 소가야문화 관련 지정문화재 현황 ····· 13
(표2-7) 고성군 전통사찰 현황 ····· 13
(표2-8) 고성군 주요축제 현황 ····· 14
(표2-9) 2016년 40회 소가야문화제 행사내용 ····· 15
(표2-10) 역대 소가야문화제 개최현황 ····· 17
(표3-1) 축제 분류표 ····· 21
(표3-2) 개최목적별 및 주제별 축제일수 현황 ····· 24
(표3-3) 경남시군 문화제 및 문화예술행사 개회현황 ····· 28
(표3-4) 경남 군지역 문화제 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현황(고성군 제외) ····· 29
(표3-5) 2017년 가야문화축제 주요행사 내용 ····· 30
(표3-6) 2017년 의병제전 주요 행사내용 ····· 33
(표3-7) 2017년 함안 아라문화제 주요 행사내용 ····· 36
(표3-8) 2016년 비사벌문화제 주요 행사내용 ····· 38
(표3-9) 2016년 토지문학제 주요 행사내용 ····· 40
(표3-10) 2016년 남명선비문화축제 주요 행사내용 ····· 42
(표3-11) 2016년 거창 한마당축제 주요 행사내용 ····· 44
(표3-12) 2016년 대야문화제 주요 행사내용 ····· 46
(표3-13) 2017년 대가야 체험 축제 주요 행사내용 ····· 50
(표3-14) 2017년 군산시 시간여행축제 주요 행사내용 ····· 54
(표3-15) 2017년 부안마실축제 주요 행사내용 ····· 56
(표3-16) 2017년 탐라문화제 주요 행사내용 ····· 58
(표3-17) 2017년 백제문화제 주요 행사내용 ····· 60

(표4-1) 문화체육관광부 축제 참관 평가 항목 ····· 67
(표4-2) 소가야문화제 SWOT 분석 및 발전전략 ····· 70
(표4-3) 응답자 특성(전체) ····· 72
(표4-4) 응답자 특성(면지역 비교) ····· 72
(표4-5) 과거 소가야문화제 방문여부 ····· 73
(표4-6) 인상 깊은 프로그램 ····· 74
(표4-7) 향후 가장행렬 시행 방안 ····· 75
(표4-8) 발전 희망 프로그램 ····· 77
(표4-9) 읍면농악경연대회 추진 방안 ····· 78
(표4-10) 먹거리 장터 운영 방안 ····· 79
(표4-11) 소가야문화제 개최 주기 ····· 80
(표4-12) 소가야문화제 행사 기간 ····· 81
(표4-13) 소가야문화제 행사 주관 ····· 82
(표4-14) 소가야문화제 개선사항 ····· 83
(표4-15) 고성군 이미지 제고 기여도 ····· 84
(표4-16) 군민화합과 일체감 조성 기여도 ····· 84
(표4-17)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84
(표4-18)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도 ····· 85
(표5-1) 경남시군 축제행사 주관단체 현황 ····· 91
(표5-2) 주관단체 대안별 장단점 분석 ····· 92
(표5-3) 소가야문화제 개최주기 비교 ····· 96
(표5-4) 고성군의 지정문화재 ····· 98

그 림 목 차

Contents

(그림2-1) 고성군 광역위치도 ····· 8
(그림2-2) 고성군 행정구역도 ····· 8
(그림2-3) 경남시군 면적현황 ····· 8
(그림2-4) 경남시군 재정자립도 현황 ····· 9
(그림2-5) 고성군 읍면별 인구현황 ····· 10
(그림2-6) 경남지역 고령화율 ····· 11
(그림2-7) 경남시군별 외국인수 ····· 11
(그림2-8) 경남시군별 인구 천명당 외국인수 ····· 11
(그림3-1) 전국 지역축제 개최일수 ····· 24
(그림3-2) 전국 지역축제 개최시기 현황 ····· 25
(그림3-3) 전국 지역축제 개최주기 현황 ····· 26
(그림3-4) 전국 지역축제 개최목적 현황 ····· 26
(그림3-5) 전국 지역축제 주제별 현황 ····· 27
(그림3-6) 가야문화축제 행사사진 ····· 32
(그림3-7) 의병제전 행사사진 ····· 35
(그림3-8) 아라문화제 행사사진 ····· 37
(그림3-9) 비사벌문화제 행사사진 ····· 39
(그림3-10) 토지문학제 행사사진 ····· 41
(그림3-11) 남명선비문화축제 행사사진 ····· 43
(그림3-12) 거창한마당축제 행사사진 ····· 45
(그림3-13) 대야문화제 행사사진 ····· 47
(그림3-14)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사진 ····· 49
(그림3-15) 대가야체험축제 행사사진 ····· 51
(그림3-16) 동래읍성 역사축제 행사사진 ····· 53
(그림3-17) 군산시간여행축제 행사사진 ····· 55
(그림3-18) 부안 마실축제 행사사진 ····· 57
(그림3-19) 제주 탐라문화제 행사사진 ····· 59
(그림3-20) 백제문화제 행사사진 ····· 62

(그림4-1) 과거 소가야문화제 방문여부 ····· 73
(그림4-2) 인상 깊은 프로그램 ····· 74
(그림4-3) 향후 가장행렬 시행 방안 ····· 75
(그림4-4) 발전 희망 프로그램 ····· 77
(그림4-5) 읍면농악경연대회 추진 방안 ····· 78
(그림4-6) 먹거리 장터 운영 방안 ····· 79
(그림4-7) 소가야문화제 개최 주기 ····· 80
(그림4-8) 소가야문화제 행사 기간 ····· 81
(그림4-9) 소가야문화제 행사 주관 ····· 82
(그림4-10) 소가야문화제 개선사항 ····· 83
(그림4-11) 소가야문화제 군민인식도 ····· 85
(그림5-1) 소가야문화제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도 ····· 90
(그림5-2) 소가야문화제 행사장 ····· 95
(그림5-3) 백제문화제 백제토기 경연대회 사례 ····· 103
(그림5-4) 뮤지컬 공연 사례 ····· 105
(그림5-5) 체험프로그램 사례 ····· 106
(그림5-6) 횡성 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 ····· 108
(그림5-7) 다문화 프로그램 사례 ····· 110
(그림5-8) 방문객 체험프로그램 사례 ····· 110
(그림5-9) 지역특산물 홍보부스 사례 ····· 112
(그림5-10) 가장행렬 사례 ····· 112
(그림5-11) 2016년 소가야문화제 농악경연대회 전경 ····· 113
(그림5-12) 농악경연대회 팀 구성 예시 안(고성읍+3개면 팀) ····· 113

제 1 장

과업의 개요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 고성군의『소가야문화제』는 1959년 이후 제40회 행사를 개최해오는 동안 소가야문화의 전통 계승과 지역문화축제로서 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행사로 자리매김 해왔으나,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고성군의 각종 환경과 군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나 기대를 적극 수용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이에 소가야문화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운영이나 세부 프로그램 측면의 개선을 통해 소가야문화제의 정체성 확립과 축제의 내용적 발전을 기하고 소가야문화제의 새로운 도약을 시도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과업의 목적

❍ 소가야문화제 축제(행사) 전반을 진단하여 그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옛 소가야지역의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한 축제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도출함

❍ 이를 위해 현재의 축제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특히, 지난 1959년부터 40여 년간 매년 개최하여 오던 소가야문화제를 격년제로 개최할 경우 이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고 군민의 정서와 여론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격년제 개최 방안을 적극 검토함

❍ 다양한 축제 행사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가야문화제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수준 높은 지역문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연구범위 및 대상

- 공간적 범위 : 경남 고성군지역(고성읍 중심)
- 시간적 범위 : 2015년~2017년(최근 3년간)
- 연구 대상 : 소가야문화제

❍ 내용적 범위
- 소가야 문화제 기본현황 분석
- 가야문화권 지역의 축제 등 현황 조사 분석(사례조사 실시)
- 현행 소가야문화제 행사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시
- 소가야문화제의 개선 기본방향 및 전략 제시
- 소가야문화제 운영 및 집행 개선안 제시

2)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 고성군·소가야문화제 관련 역사적 배경 및 기본 현황 고찰
- 고성군 각종 역사문화자원 현황 분석

❍ 사례조사
- 경남도내 유사 축제 사례 분석
- 전국단위 유사 축제 사례 분석

❍ 현장조사
- 소가야문화제 축제 장소 현장조사
- 고성군내 주요 역사문화자원 현장조사

❍ 설문조사
- 지역민의 여론 및 의견 수렴

❍ 관계자 자문
- 관련 기관 관계자 자문의견 수렴

제2장

소가야문화제 기본현황 및 여건 분석

제2장 소가야문화제 기본현황 및 여건 분석

1. 고성군 현황 및 각종 여건 분석

1) 연혁

❍ 고성군은 삼한시대 변한의 12소국 중 하나인 '고자미동국'으로 추정됨.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는 '변진고자미동국'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삼국사기》에는 '고자군(古自郡)'또는 '고사포국(古史浦國)'으로 기록되어 있음. 삼국시대에는 6가야 중 소가야국이었음[1)]

❍ 고자미동국은 신라 효성왕 1년(737년) 고자군으로 개칭되었고, 경덕왕 16년(757년)에 고성군으로 고쳐 강주(康州:진주)에 예속함

❍ 이후 고려 성종 14년(995년)에는 고주로 승격, 고주자사(固州刺使)를 임명하였으나 1018년 고성현으로 강등됨. 현종 9년(1018년) 거제현에 예속시키고 19개 면을 둠. 원종 7년(1266년) 지주사(知州使)로 승격, 공양왕 3년(1391년)에 고성현으로 다시 강등됨

❍ 조선 고종 7년(1870년) 고성부로 승격되고 고종 32년(1895년)에 진주부에 속해 있다가 고성군으로 개칭됨

2) 위치 및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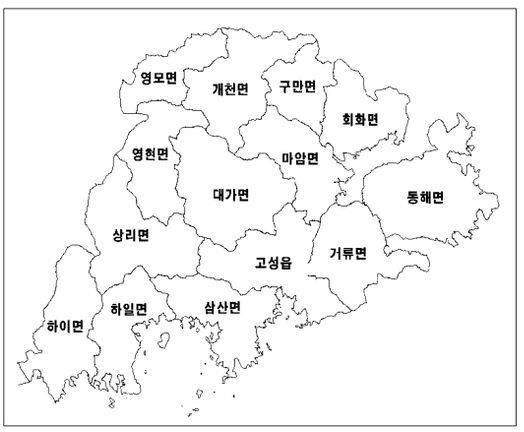
❍ 고성군은 경상남도 남부 연안의 중앙부 최남단에 자리함. 행정구역상 동으로는 바다를 끼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사천시, 남쪽으로는 통영·거제시, 동북쪽은 창원시, 서북쪽은 진주시와 연접함

1) 소가야라는 명칭이 고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남해안과 남강수계를 포함한 가야 서남부지역에 존재했던 여러 소국들을 통칭하여 표한한 것일 가능성이 있음. 가야 서남부지역에 존재했던 여러 소국들 중 가장 최후로 남은 것이 고성지역에 존재한 정치체이며, 이후 소가야=고성이 반복적으로 기록으로 남게 되면서 고착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승철,「소가야의 고고학적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의 196쪽.

(표2-1) 고성군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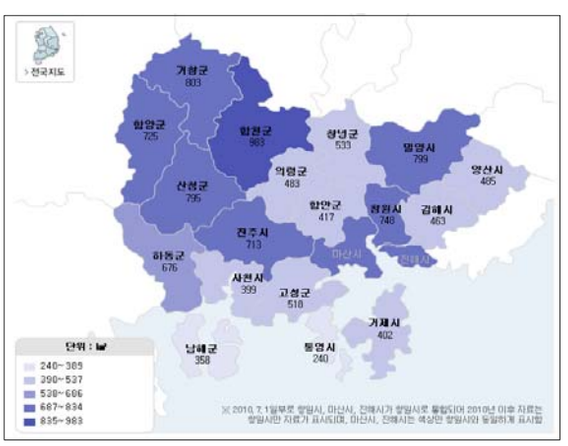
단	지점	경도와 위도		거리
		동경	북위	
동단	동해면 용정리 산49	128도30분03초	35도00분42초	동서39㎞
서단	하이면 덕호리 895-10	128도06분02초	34도54분41초	
남단	하이면 덕명리 산203-3	128도07분56초	34도53분07초	남북32㎞
북단	개천면 가천리 산111-1	128도16분23초	35도07분46초	

(그림2-1) 고성군 광역 위치도



(그림2-2) 고성군 행정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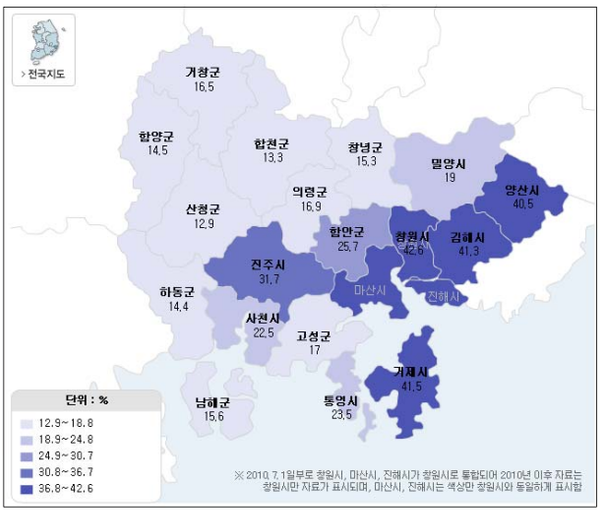
❍ 고성군의 행정구역 총면적은 517.68㎢로 경상남도 총면적 10,537.97㎢의 4.9%에 해당함. 고성군의 행정구역은 1읍 13면, 119개 법정리, 263개 행정마을로 구성되어 있음. 14개 읍·면 중에서 행정구역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동해면(53.87㎢)으로 고성군의 10.4%를 차지하며, 가장 좁은 지역은 구만면(22.23㎢)으로 군 면적의 4.3%를 차지함



(그림2-3) 경남시군 면적현황 (자료: 통계청 e-지방지표 홈페이지)

3) 재정자립도

❍ 고성군의 재정 자립도를 보면 2016년 기준 17%로, 경남도내 군지역 평균자립도 16.1%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을 보임



(그림2-4) 경남시군 재정자립도 현황 (2016년 말 기준)

자료: 통계청 e-지방지표 홈페이지

(표2-2) 고성군 연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경남지역 군 평 균	14.7	14.2	14.1	14.4	15.2	16.1
고 성 군	15.7	16.7	14.5	13.8	14.6	17

4) 인구현황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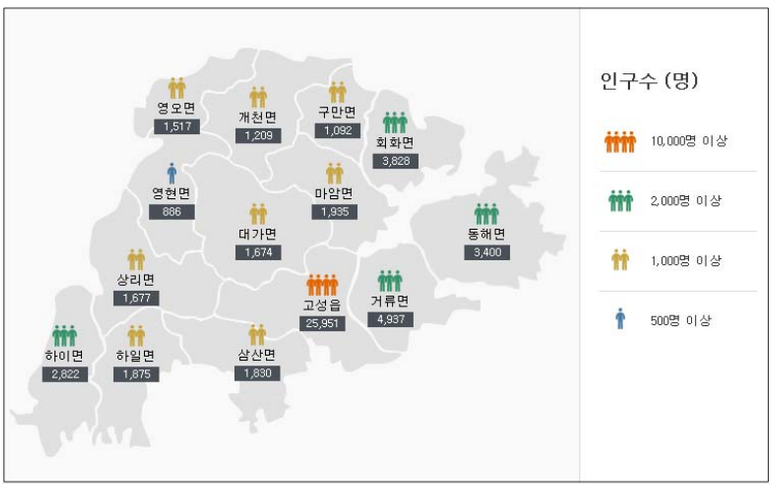
❍ 고성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2017년 2월 말 현재 54,633명임[2]이며 세대수는 25,879가구임. 인구수로 보면 고성읍이 25,951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이며, 영현면이 886명으로 가장 적음

2) 행정자치부, 2017년 2월 주민등록 인구통계 참고.

(표2-3) 고성군 읍면별 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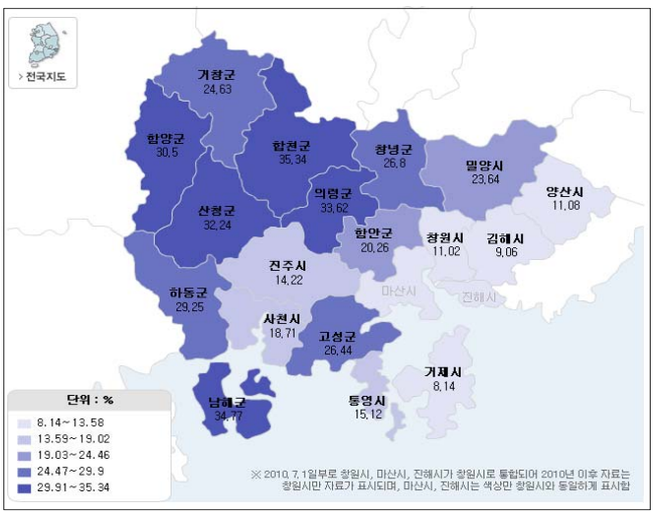
행정구역	총인구수	세대수	세대별 인구수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남녀비율
고성군	54,633	25,879	2.11	27,407	27,226	1.01
고성읍	25,951	11,101	2.34	12,982	12,969	1.00
삼산면	1,830	961	1.90	916	914	1.00
하일면	1,875	1,007	1.86	909	966	0.94
하이면	2,822	1,289	2.19	1,446	1,376	1.05
상리면	1,677	902	1.86	830	847	0.98
대가면	1,674	908	1.84	825	849	0.97
영현면	886	525	1.69	395	491	0.80
영오면	1,517	790	1.92	746	771	0.97
개천면	1,209	636	1.90	585	624	0.94
구만면	1,092	589	1.85	540	552	0.98
회화면	3,828	1,952	1.96	1,889	1,939	0.97
마암면	1,935	939	2.06	991	944	1.05
동해면	3,400	1,758	1.93	1,743	1,657	1.05
거류면	4,937	2,522	1.96	2,610	2,327	1.12

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통계 자료 (2017.2. 기준)



(그림2-5) 고성군 읍면별 인구현황 (자료: 고성군 홈페이지)

❍ 2016년 말 기준 고성군의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율, 즉 고령화율은 26.44%임. 참고로 동년 기준 경남지역 전체 고령화율은 14.24%로, 도내 군지역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경남도 전체로 볼 때는 높은 편에 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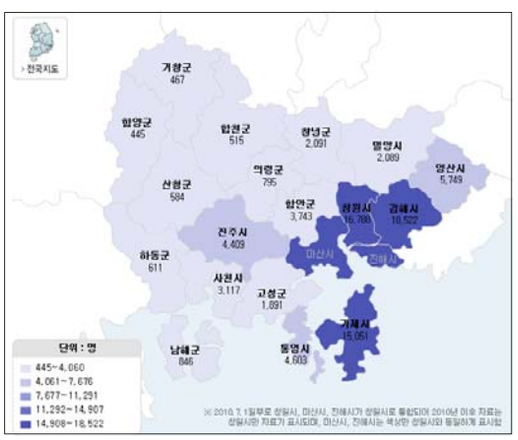


(그림2-6) 경남지역 고령화율(2016년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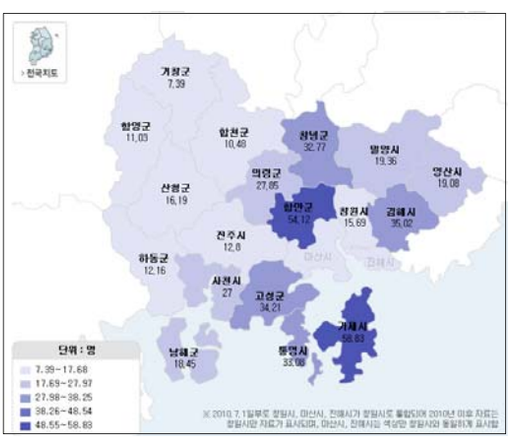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e-지방지표 홈페이지

❍ 고성군민 중 외국인 수를 보면 다음과 같음. 2015년 말 현재, 경남 전체 외국인 수 82,316명의 2.3%인 1,891명이 고성군에 거주하고 있음. 이를 인구 천명당 수로 보면 경남전체 평균인 24.46명 보다 많은 34.21명으로, 경남군부에서는 함안군 다음으로 높은 외국인 비율을 보임

❍ 이러한 높은 외국인 비율은 향후 고성군의 각종 지역행사나 계획 수립시 중요한 여건환경 고려요인으로 충분히 감안해야 함



(그림2-7)경남시군별 외국인수(2015년말)



(그림2-8)경남시군별 인구천명당 외국인수(2015년말)

자료: 통계청 e-지방지표 홈페이지

5) 역사문화자원 기본현황

(1) 문화기반시설 현황

❍ 고성군의 문화기반시설은 현재 9개가 있음. 공공도서관 2개, 박물관 5개, 문예회관 1개, 문화원 1개이며, 미술관과 문화의 집은 현재 없는 상태임

(표2-4) 고성군 문화기반시설 현황

지역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합계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경남도	190	65	41	24		60	38	16	6	9	4	5		20	20	16
고성군	9	2	1	1		5	5							1	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16.

(2) 지정문화재 현황

❍ 고성군의 많은 문화유산 중 지정문화재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국가지정문화재는 보물 4개 등을 포함하여 10개가 있음. 이중에 국가무형문화재로는 고성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제7호)와 고성농요(국가무형문화재 제84-1호)가 있음

❍ 도지정문화재는 34개, 문화재자료 28개, 등록문화재가 1개 있음. 등록문화재로는 고성 학동마을 옛 담장이 있음

(표2-5) 고성군 지정문화재 현황 (2015년 말 현재)

총계 (건)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소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73	10		4	2		2	2		1	34	19		12	3	28

자료: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고성군 지정문화재중 소가야관련 지정문화재로는 송학동고분군과 내산리고분군이 있음

(표2-6) 소가야문화 관련 지정문화재 현황

문화재명	위치	내 용	비 고
송학동 고분군	고성읍 송학리 473-5번지	고성읍 송학리와 기월리 일원에 분포하고 있으며, 해발 25m 전후의 낮은 구릉에 조성된 소가야 최대고분군임. 10여기의 대형고분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현재는 6기만 잔존함	사적 제119호
내산리 고분군	동해면 내산리 188-10번지	고성읍에서 다소 떨어진 동해면 내산리 일원의 낮은 언덕과 평지 그리고 구릉의 정상부 등에 군집을 이루며 분포함. 현재 60여기 정도가 잔존함. 고분군의 분포는 '가', '나'지구로 구분되며, '가'지구는 원형의 분구묘이며, '나'지구는 석실을 주체로 하는 봉토분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임	사적 제120호

(3) 전통사찰 현황

❍ 고성군의 전통사찰은 2016년 말 현재 5개소로 기본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2-7) 고성군 전통사찰 현황(2016년 말 현재)

사 찰 명	소 재 지	비 고
옥천사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조계종
장의사	고성군 거류면 신룡리 1077	조계종
문수암	고성군 상리면 무선리 134	조계종
계승사	고성군 영현면 대법리 산17-1	조계종
운흥사	고성군 하이면 와룡리 442	조계종

(4) 축제자원 현황

❍ 고성군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축제자원은 4개로, 그 기본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2-8) 고성군 주요축제 현황

축제명	개최기간	축제 주요내용	개최장소	주관기관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2016.4월 개최	공룡 테마로 한 국제 엑스포 개최. 화석전시관, 5D영상관, 미디어 파사드, 불꽃 쇼, 다양한 빛 체험관 등과 함께 '별빛광장', '달빛정원', '빛의 강', '빛의 나라', '빛의 성' 등의 야간 행사 프로그램으로 구성	회화면 당항포관광지 일원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소가야문화제	매년 9월경	주민화합을 위한 지역 대표 축제임. 서제봉행, 고성군민의 날 기념식, 읍면 농악경연대회, 고성오광대 시연 등 다양한 주민화합 행사와 경연대회 개최	고성군 종합운동장 및 군내 일원	소가야문화보존회
당황포대첩축제	매년 7월경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당항포대첩의 영광을 재현하는 축제 행사임. 각종 체험행사, 월이 인형극, 초청공연 등의 다양한 행사 진행	회화면 당항포관광지	당항포축제위원회
촌스런축제	매년 7월	영현면 축제로 지역 홍보 및 주민화합을 위한 지역 축제임. 국악공연, 초청가수 공연, 색소폰 연주, 무용단 공연, 어울림마당, 지역 특산물 판매장, 농경체험 행사 등 개최	영현면 영동둔치공원	영현면발전위원회

2. 소가야문화제 기본현황

1) 행사개요

❍ 소가야문화제는 1959년에 "광복예술제"란 이름으로 고성문화원 등 지역의 뜻있는 인사와 예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처음 개최하였음. 이후 격년제로 하여 2회까지 개최되었고 1963년 제3회 행사부터 문화제 명칭이 "가야문화제"로 개칭됨

❍ 1971년 제8회 제전을 치르고 예산관계로 중단 되었으며, 1983년에 뜻있는 지역문화예술인과 체육계 인사들이 힘을 모아 "소가야문화제추진협의회"를 구성함. 동년 9월 20일에 "제9회 가야문화제"와 "제16회 고성군민 체육대회"를 군 체육회와 공동으로 개최함

❍ 이후 매년 가야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는 동시에 개최되었으며, 1983년부터는 가야문화제행사의 재정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던 "사단법인 소가야문화보존회"가 직접 주관하고 있음

❍ 1989년 제14회 행사부터 축제명칭이 "소가야문화제"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2) 행사 주요내용

❍ 소가야문화제의 주요행사로는 전야제와 서제행사로 불꽃놀이·제등행렬과 "고성인의 밤"을 개최하고 개막식 때 가장행렬, 고성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제7호)와 고성농요(국가무형문화재 제84-1호)의 공연과 군악대연주, 의장대 시범 등이 열리고 있음. 이와 함께 각종 문화행사, 민속행사, 전시행사, 체육행사 등이 다채롭게 열림

❍ 참고로, 2016년 40회 소가야문화제의 행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홍보 부분을 제외하고 여는마당, 경연마당, 어울마당, 전시마당, 특별행사로 나뉘어져 전체 32개의 개별 행사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음

(표2-9) 2016년 40회 소가야문화제 행사내용

구 분	프로그램 행사	장소	비 고
여는마당	·서제봉행 ·고성군민의 날 기념식 ·고성인의 밤(축하리셉션) ·군민노래자랑 ·축하 불꽃놀이	·고성송학동고분군 ·고성군 국민체육센터 ·고성군종합운동장	5개 행사
경연마당	·전국시조 경창대회 ·군민·출향인 민속경기 ·한글백일장 ·학생사상대회 ·서예휘호대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틴틴 청소년 탑밴드 경연대회 ·읍면농악경연대회	·고성문화원강당 ·고성군종합운동장 스포츠타운 ·고성군국민체육센터	8개 종목
어울마당	·고성오광대 공연 ·고성농요공연 ·국악한마당 ·풍년무료주점 ·알뜰도서교환시장 ·민족통일무료찻집 ·비나리고사무료주점	·고성군종합운동장 ·고성송학동고분군	7개 종목

구 분	프로그램 행사	장소	비 고
전시마당	·전통차시음회 ·시화전시 ·미협회원전 ·서각전시 ·서예전시 ·사진전시 ·수석전시 ·한국춘란엽예품전시 ·농경유물전시	·고성박물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9개 종목
특별행사	·청소년한마당축제 ·고성박물관특별전 ·지역먹거리장터	·고성군국민체육센터 ·고성박물관 ·고성종합운동장	3개 종목
행사홍보	·홍보탑 설치 ·애드벌룬 설치 ·거리홍보배너 게양 ·홍보현수막 게양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행정방송망을 통한 홍보		7개 종목

3) 행사장소 및 기간

❍ 소가야문화제의 행사 진행 장소는 고성군 일원에서 행사 프로그램별로 분산되어 개최됨

❍ 2016년의 경우, 여는마당은 고성송학동고분군, 고성군 국민체육센터, 고성군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으며 다른 행사들 역시 상기 장소와 함께 고성문화원, 고성박물관 등지에서 각각 개최됨

❍ 그간의 소가야문화제의 행사기간은 보통 1~3일 정도로, 개최년도 상황과 행사내용에 따라 일정이 조금씩 조정되었음. 군민체육대회와 같이 개최될 때에는 일반적으로 3일간 행사가 진행되었음

❍ 2016년에 개최된 제40회 소가야문화제의 경우, 체육대회와 별도로 개최되어 동년 9.30~10.1까지 이틀간 진행되었음

4) 역대 소가야문화제 행사 개최현황

❍ 지난 소가야문화제의 개최 현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2-10) 역대 소가야문화제 개최현황

행사명	행사기간	비고
제1회	1959.8.15	고성문화원
제2회	1961.8.15	고성문화원
제3회	1963.10	고성문화원
제4~7회	1964. 66. 68. 70년	고성문화원
제8회	1971.10	고성문화원
제9회	1983.9.20~9.23	고성문화원: 이후 중단 및 부활 소가야문화제추진협의회 고성문화원 공동추진
제10회	1984.9.11~9.13	군민체육대회
제11회	1985.10.29~10.31	청사개청
제12회	1987.9.26	
제13회	1988.9.26~9.28	군민체육대회
제14회	1989.9.18~9.20	본회가 주관
제15회	1990.11.3	체육관 개관
제16회	1991.9.26~9.28	군민체육대회
제17회	1992.11.6~11.7	군민체육대회
제18회	1993.10.5~10.7	군민체육대회
제19회	1994.10.19~10.21	군민체육대회
제20회	1995.10.4~10.6	제1회 군민의날
제21회	1996.10.24~10.26	제2회 군민의날
제22회	1997.9.30~10.2	제3회 군민의날
제23회	1998.9.30~10.1	IMF관계로 간소화
제24회	1999.9.30~10.2	군민체육대회
제25회	2000.8.3~8.6	고성공룡나라축제와 병행
제26회	2001.4.25~4.27	군민체육대회
제27회	2002.4.23~4.25	군민체육대회
제28회	2003.5.15~5.17	군민체육대회
제29회	2004.10.1~10.3	군민체육대회
제30회	2005.10.6~10.8	군민체육대회
제31회	2006.10.11~10.13	군민체육대회

행사명	행사기간	비고
제32회	2007.10.1~10.3	군민체육대회
제33회	2008.9.30~10.2	군민체육대회
제34회	2010.9.30~10.2	군민체육대회
제35회	2011.9.29~10.1	군민체육대회
제36회	2012.10.3~10.5	군민체육대회
제37회	2013.9.30~10.2	군민체육대회
제38회	2014.9.30~10.2	군민체육대회 격년제
제39회	2015.9.30~10.2	군민체육대회
제40회	2016.9.30~10.1	

자료: 고성군, 고성군지, 2015. 11편 고성의 문화·예술·언론·체육, 63~66쪽 자료 수정 인용

5) 행사 주관

❍ 소가야문화제 행사주관은 1983년 이래로 사)소가야문화보존회(小伽耶文化保存會)에서 담당하고 있음

- 법인 설립일자: 1986년 2월26일 문화관광부장관 허가(제535호)로 설립

❍ 사)소가야문화보존회는 1983년 소가야문화제추진협의회를 법인 설립의 추진모체로 하여, 10여 년 간 중단되었던 소가야문화제를 다시 부활하여 1983년에 제9회 가야문화제와 제16회 고성군민 체육대회를 고성군체육회와 공동으로 개최함

❍ 이후 현재까지 소가야문화제 주관단체로 행사개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참고로 사)소가야문화보존회의 정관에 있는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본 법인은 조상의 숨결이 깃들고 향토의 얼이 서린 우리 고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고성인들의 뜻을 모아 향토의 전통문화를 발굴조명하고 소가야문화제를 보존 전승하여 매년 군민의 축 제를 열어 화합의 광장이 되게 하는 동시 문화진흥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소가야문화보존회의 설립 목적은 기본적으로 소가야문화제의 주관과 지역향토사 연구와 지역문화 진흥 사업으로 크게 구분되나, 현재는 소가야문화제 행사 주관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임

제3장

축제 이론적 접근 및 사례 분석

제3장 축제 이론적 접근 및 사례 분석

1. 축제 이론적 접근

1) 축제의 분류

❍ 지역 축제는 다양한 목적과 주제, 규모, 성격, 운영방식 등으로 열리기 때문에 축제를 하나로 명확히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지역축제 실태조사 (2016)에서는 축제를 주제에 따라 전통문화, 문화예술, 지역특산물, 생태자연, 주민화합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또한, 축제 목적에 따라 전통민속보존, 주민화합, 지역상품판매, 관광이벤트, 문화예술향유로 분류하여 축제의 이해를 도모함[3)]

❍ 이를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3-1) 축제 분류표

축제 분류		내용 및 기준
주제별 분류	전통문화	지역 고유의 전통이나 민속적 요소 등 지역에 전승되는 전통문화를 알리는 목적으로 하는 축제
	문화예술	지역의 문화와 예술 증진 및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
	지역특산물	지역의 특산물의 홍보·판매 및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
	생태자연	환경보존 및 생태학습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
	주민화합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
목적별 분류	전통민속 보존	지역 고유의 전통이나 민속적 요소를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
	주민화합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
	지역상품판매	지역산업의 육성 및 기여,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
	관광이벤트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
	문화예술향유	지역의 문화와 예술 증진 및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지역축제 실태조사, 2016의 x쪽 참고하여 표로 구성함

❍ 참고로 소가야문화제는 이 유형분류에 따르면 주제별로는 주민화합형 축제로 분류되며, 목적별로 보면 문화예술향유로 분류 가능함

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지역축제 실태조사, 2016의 x쪽 참고.

2) 축제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

❍ 지역축제의 가치와 역할은 다양하게 이해됨. 한 연구에서는 “지역공감대 형성과 지역성에 대한 재인식, 여가활용의 기회 제공과 재사회화, 지역공동체 의식과 문화공동체 의식의 함양, 조화와 소통의 매개체”로서의 지역축제의 가치와 역할을 말하고 있음[4)]

❍ 지역축제는 기본적으로 전통문화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와 상징성을 지니고, 지역의 통합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의 정체성 확립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지역의 축제는 그 지역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지역민들 간의 연대감과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일조함

❍ 지역축제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의 하나로 지역에 경제적 혜택을 창출하며, 또한 지역축제는 지역의 사회·문화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인적자원의 활용에도 이바지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함

❍ 이러한 지역축제에는 그 지역의 고유한 역사성과 전통성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어야 하며, 그 지역만의 특수성, 고유성, 희소성이 잘 드러날 때 방문객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능동적인 축제 참여의식을 불러올 수 있음

3) 축제 최근 트렌드 이해

❍ 최근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평가 보고서[5)]에서는 “축제를 통한 지방의 국제화, 야간 프로그램의 강화, 디테일 축제서비스,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한 노력”이 새로운 축제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즉, 지역축제에 점차 외국인이 찾아와 축제를 즐기는 경우가 들어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축제 참여 프로그램,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개선 등이 이루어져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음

4) 류정아, 「지역축제 평가 및 지원체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의 17~19쪽 참고.
5) 문화체육관광부, 『2016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2017의 3~8쪽 참고.

❍ 축제 방문객의 체류를 널리기 위해 야간 행사를 강화하는 축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 행사를 주목적으로 하는 불꽃 축제가 증가하고 있음. 많은 축제들이 야간이벤트나 공연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방문객 만족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또한, 축제서비스를 개선하여 주차문제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 등 방문객이 편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하는 디테일 축제서비스가 점차 확대되어 축제의 고품격화와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음. 장애인이나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와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축제 서비스 개선도 지속적으로 요구됨

❍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축제 재정자립도 향상, 민간주도형 축제를 위한 축제 전문가 육성,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축제콘텐츠 개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축제참여”[6]와 같은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일부 우수축제에서는 축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축제 입장권 판매나 일부 행사프로그램의 관람 유료화 등을 시도하고 있어 유료관람 축제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공연축제의 경우 입장료 유료화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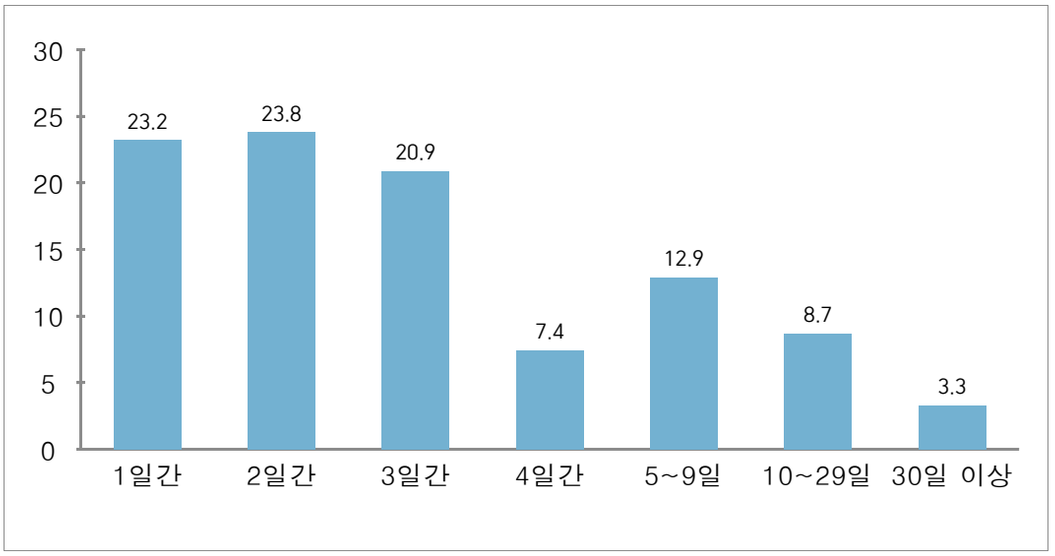
4) 축제 주요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지역축제 실태조사[7]에 따르면 2014. 1. 1~ 12. 31기간 중에 개최된 축제를 기준으로 할 때, 전국 지역축제는 총 1,136개, 마을 축제는 78개로 조사되었음. 이 지역축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몇 가지 주요 현황[8]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역축제의 “운영성격”을 예산 기준으로 보면 ‘관주도형 축제’는 약 52.6%, 민-관 축제는 43.8%, 순수 민간 예산 축제는 3.3%에 불과함

❍ 지역축제 가운데 축제 기간이 ‘3일 이하’인 지역축제는 67.9%임. 축제기간이 ‘2일’인 지역축제가 23.8%로 가장 많았고, 1일간 ‘23.2%’, 3일간 ‘20.9%’ 순 임. 10일 이상인 지역축제는 전체 지역축제 중 12.0%, 축제기간이 30일이상인 지역축제도 3.3%이었음

6) 문화체육관광부, 『2016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2017의 7쪽.
7)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지역축제 실태조사』, 2016.
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지역축제 실태조사』, 2016에 수록된 실태현황 중 보고서 전개에 필요한 몇 가지 현황을 발췌하여 서술함. 문장별 개별 인용처리는 편의상 생략함을 밝힘. 또한, 관련 그림과 표 자료 역시 동 보고서에서 인용함.



(그림3-1) 전국 지역축제 개최일수(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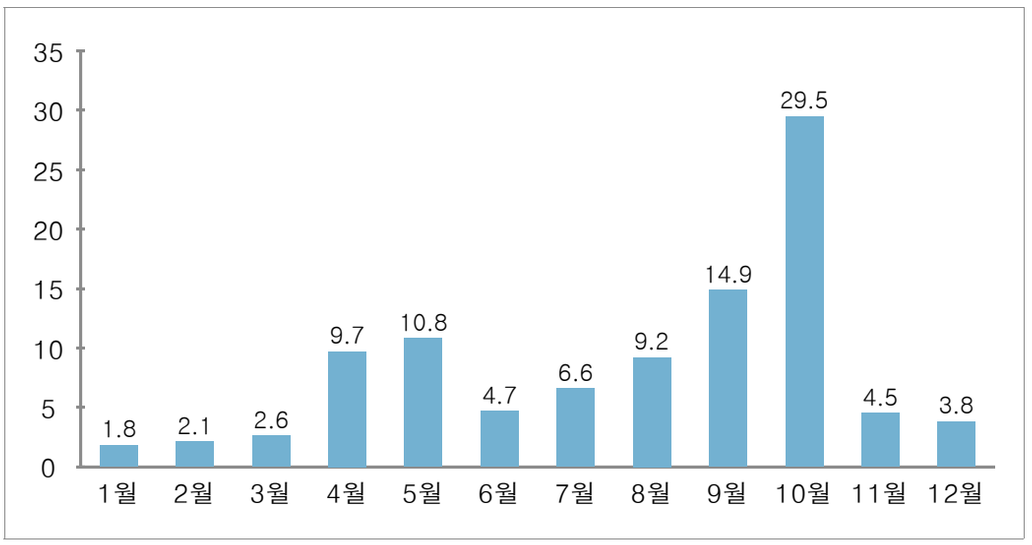
❍ “개최목적별”로 살펴보면 ‘관광이벤트’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의 평균 축제기간이 가장 길었고 그 다음 ‘문화예술향유’, ‘지역상품판매’의 순이었음

(표3-2) 개최목적별 및 주제별 축제일수 현황

항목		사례수	1일간	2일간	3일간	4일간	5~9일	10~29일	30일 이상	계	평균(일)
전체		1,136	23.2	23.8	20.9	7.4	12.9	8.7	3.3	100.0	5.36
개최목적별	전통민속보존	198	33.8	22.2	24.2	6.6	11.1	1.0	1.0	100.0	2.97
	주민화합	248	46.0	24.2	12.5	6.5	7.3	2.4	1.2	100.0	2.89
	지역상품판매	214	10.3	26.6	33.2	7.9	13.1	7.5	1.4	100.0	4.71
	관광이벤트	182	12.1	25.8	18.1	8.2	12.6	14.8	8.2	100.0	8.52
	문화예술향유	294	12.9	21.1	18.4	7.8	18.7	16.3	4.8	100.0	7.55
주제별	전통문화축제	223	30.9	25.1	21.1	9.4	10.8	2.2	0.4	100.0	3.00
	문화예술축제	340	14.7	20.6	18.8	7.6	19.1	15.0	4.1	100.0	7.43
	생태자연축제	128	17.2	25.8	18.0	4.7	10.2	14.1	10.2	100.0	8.49
	지역특산물축제	224	10.3	25.9	31.7	9.4	12.1	8.0	2.7	100.0	5.05
	주민화합축제	221	44.8	24.0	14.5	4.5	7.7	3.2	1.4	100.0	3.03

❍ “주제별”로는 ‘생태자연축제’의 평균 축제기간이 가장 길었고, 그 다음 ‘문화예술’, ‘지역특산물’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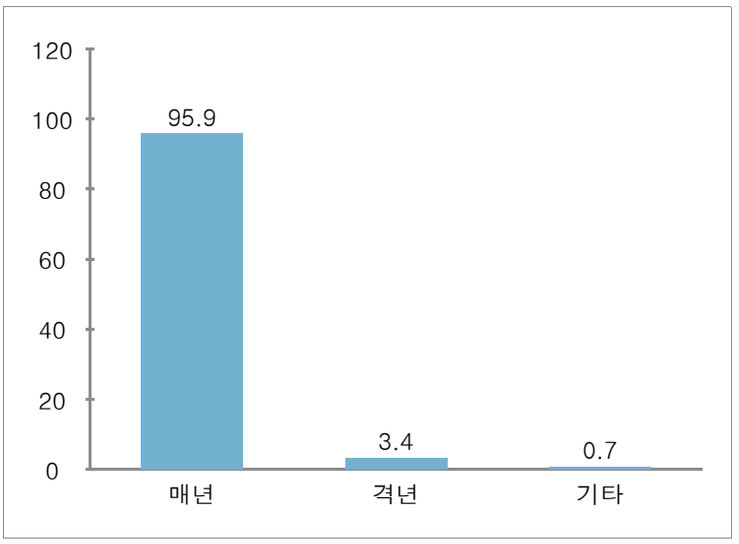
❍ 지역축제 개최시기를 보면 전체 지역축제 중 ‘10월’에 개최되는 축제는 29.5%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9월(14.9%)’, ‘5월(10.8%)’, ‘4월(9.7%)’의 순으로 나타남. 전체 지역축제 중 1월에 개최되는 축제는 1.8%로 가장 적었고, ‘2월(2.1%)’ 과 ‘3월(2.6%)’순으로 나타남



(그림3-2) 전국 지역축제 개최시기 현황(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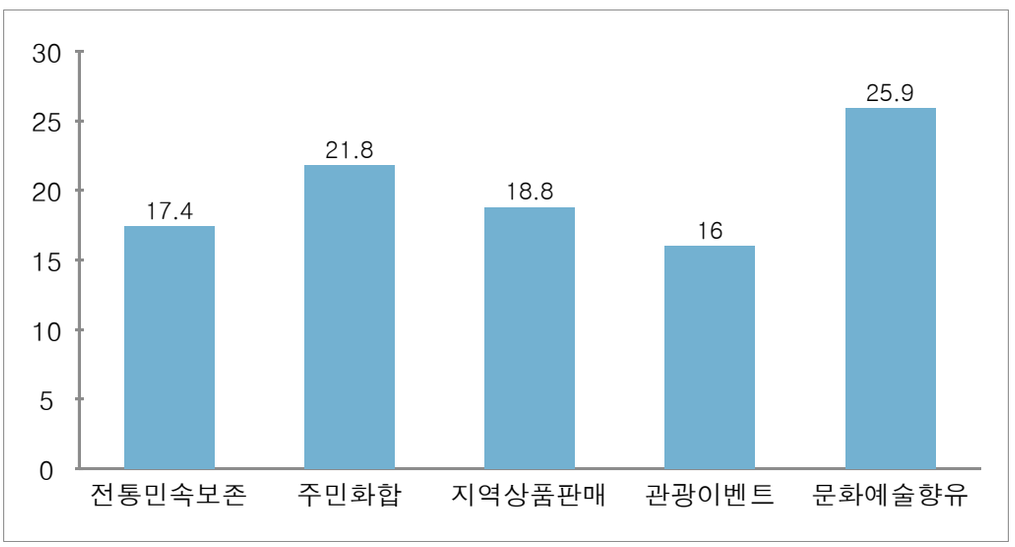
❍ 전체 지역축제 중 축제 소재가 ‘자연 경관, 관광지 및 지역 명소’ 인 축제의 비중이 2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특산물·농수산물·식품·약재(22.9%)’, ‘문화예술(21.0%)’, ‘전통문화·민속(15.8%)’, ‘역사·인물·과학·교육(8.5%)’, ‘주민화합 및 지역산업(4.6%)’, 여행·웰빙·스포츠·가족활동(2.1%), 기타(1.8%)의 순으로 조사됨

❍ 전체 지역축제는 95.9%가 ‘매년’ 개최됨. 개최주기가 ‘격년’인 축제는 전체 지역축제 중 3.4%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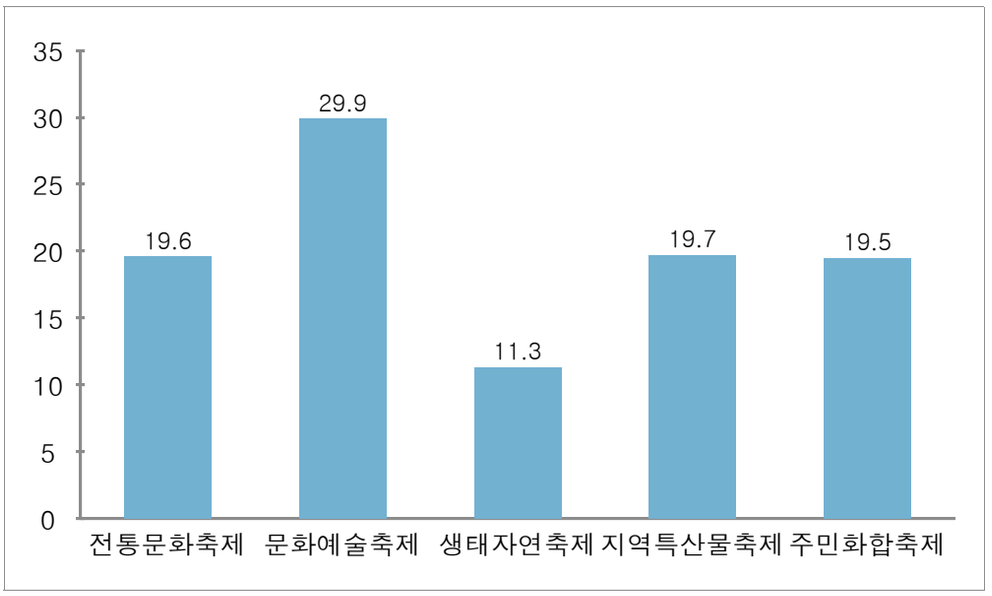
(그림3-3) 전국 지역축제 개최주기 현황(단위:%)

❍ 전국 지역축제의 “축제 개최 목적”을 살펴보면, ‘문화예술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가 전체에서 25.9%로 가장 높고, 주민화합’(21.8%), ‘지역상품 판매’(18.8%), ‘전통 민속보존’(17.4%), ‘관광이벤트’(16.0%)의 순임



(그림3-4) 전국 지역축제 개최목적 현황(단위:%)

❍ 전국 지역축제의 주제를 보면 ‘문화예술’을 주제로 하는 지역축제가 2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역특산물축제(19.7%)’, ‘전통문화축제(19.6%)’, ‘주민화합축제(19.5%)’의 순임. 생태자연축제는 11.3%로 가장 적음



(그림3-5) 전국 지역축제 주제별 현황(단위:%)

❍ 전국 지역축제의 “주최”를 보면, ‘광역·기초지자체’가 47.3%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 ‘축제추진위원회(21.0%)’, ‘청년·마을·주민회/번영회/협동조합/연합회(12.9%)’, ‘사단법인(12.1%)’, ‘문화원/박물관/미술관/예술위원회 등(4.0%)’, ‘동/읍/면(2.5%)’ 순으로 비중이 높음. 그밖에 기타(학교, 기업, 군, 종교, 은행 등) 1.9%, 신문·방송사 1.8%, 재단법인 1.6%, 중앙·공사·공단 1.1% 순으로 소수를 차지함

2. 국내 유사 축제 사례분석

1) 경남지역 유사 축제 사례

❍ 매년 경남지역에서는 다양한 성격의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음. 이러한 축제현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3-3) 경남시군 문화제 및 문화예술행사 개최현황

시군명	행사명	주최	주관	비고
창원시	마산 만날제	창원시/마산예총	만날제운영위원회	
창원시	야철제	창원시	창원문화원	
창원시	진해군항제	창원시	진해군항제축제추진위원회	
창원시	진해예술제	창원시	한국예총 진해지회	
창원시	창원예술제	창원시	한국예총 창원지회	
진주시	개천예술제	진주시	개천예술제 제전위원회	조례 명시
진주시	진주논개제	진주시	진주논개제 제전위원회	
통영시	통영한산대첩축제	통영시	한산대첩기념사업회	조례 명시
사천시	와룡문화제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조례 명시
김해시	가야문화축제	김해시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조례 명시
김해시	김해예술제	김해시	한국예총 김해지회	
밀양시	밀양아리랑제	밀양시	밀양문화제집전위원회	조례 명시
거제시	옥포대첩기념제전	거제시	옥포대첩기념제전위원회	
의령군	의병제전	의령군	의령기념사업회	
함안군	함안 아라문화제	함안군	아라제위원회	
창녕군	비사벌문화제	창녕군	비사벌문화예술제전위원회	
고성군	소가야문화제	고성군	소가야문화보존회	
하동군	토지문학제	하동군	토지문학제 운영위원회	조례 명시
산청군	남명선비문화축제	산청군	남명선비문화축제집행위원회	
산청군	지리산평화제	산청군	지리산평화제 추진위원회	
거창군	거창한마당축제	거창군	아림예술제위원회	조례 명시
합천군	대야문화제	합천군	대야문화제제전위원회	

(표3-4) 경남 군지역 문화제 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현황(고성군 제외)

시군명	문화제 행사		체육대회		비고
	명칭	개최주기	명칭	개최주기	
의령군	의병제전	매년	군민체육대회	미개최	
함안군	아라제	매년	군민체육대회	미개최	2011년까지 군민체육대회 개최
남해군	화전문화제	격년제	군민체육대회	격년제	
창녕군	비사벌문화예술제	매년	군민체육대회	격년제	
하동군	토지문학제	매년	군민체육대회	격년제	문화제행사와 분리 개최
산청군	지리산평화제 남명선비문화축제	매년	군민체육대회	격년제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 함양연암문화제	매년	군민체육대회	매년	
합천군	대야문화제	매년	군민체육대회	매년	
거창군	아림예술제	매년	군민체육대회	부정기적	

❍ 현행 소가야문화제와 같은 주민화합형 축제는 경남지역의 각 시군에서 많이 개최되고 있음. 소가야문화제와 유사한 성격의 축제 사례를 고찰하여 향후 소가야문화제의 발전방향과 개선방안 도출에 참고하기 위해 경남지역내 가야문화권 지역의 유사 축제 사례를 분석함

※ 경남지역 가야문화권 : 고성, 의령, 함양, 창녕, 산청, 거창, 합천, 함안, 김해

(1) 가야문화축제

□ 개 요

❍ 행사명 : 가야문화축제-가야왕도의 새로운 비상(飛上)

❍ 취 지 : 가락국 시조 김수로왕의 창국정신을 기리고 우수한 가야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함

❍ 일 시 : 매년 4월

❍ 장 소 : 대성동 고분군, 가야의 거리, 대성동고분박물관, 수릉원, 수로왕릉, 구지봉, 국립김해박물관, 해반천, 김해오일장 및 김해 원도심 골목 등

❍ 주 최 : 김해시

❍ 주 관 : (사)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 연 혁 : 41번째 축제 개최

- 1962년부터 수로왕 춘향대제일(음력 3월 15일)에 맞추어 개최한 가락문화제와 가야문화유산을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 등재 목표로 2년간 개최해 온 가야세계문화축전을 통합하여 2007년에 새롭게 단장

□ 2017년 주요행사

❍ 2017년 주요 행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표3-5) 2017년 가야문화축제 주요행사 내용

구 분	행 사 내 용
공식행사	고유제·혼불채화, 혼불봉송, 혼불안치, 수로왕 행차 및 무대퍼포먼스, 춘향대제
민속행사	김해 줄 댕기기, 무형문화재 김해오광대, 가야농악경연대회, 민속윷놀이대회, 삼정걸립치기, 장유화상추모제
축제행사	김해만장대 전국가요제, 전국 직장인동아리 밴드 페스티벌, 다문화가족 장기자랑, 청소년 한마당, 김해 원도심 골목축제, 풍등날리기, 지역예술인 한마당
체험행사	가야유물 체험존, 가야시대 테마촌, 가야왕도김해 농경문화체험, 가야무사 체험존, 찾아라! 가야보물(왕도가야-GO), ICT 축제종합 홍보관, 가야배/인도배 뱃길체험, 시티투어

구 분	행 사 내 용
설치행사	가야문양 깃발설치, 무사여 불을 밝혀라(가야문양 조형물설치 등), 수로왕 탄강/결혼설화 벽화설치
연계행사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우리고장 우수제품 전시·판매전, 사회적 기업홍보·판매, 김해전국 차그릇 공모대전, 가야사 학술회의, 가야차문화 한마당
부대행사	전국 학생 미술실기대회, 어린이 동화구연대회, 전국백일장,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가야문화축제 전국웅변·스피치대회, 김해전국사진 공모전, 전국정가(시조·가사·가곡)경창대회

□ 축제 분석 및 시사점

❍ 가야문화축제는 1962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음

❍ 수로왕의 탄강설화가 서려있는 구지봉에서 고유제와 혼불 채화를 시작으로 수로왕이 허황옥 공주를 맞이하는 친영례(親迎禮) 행렬이 연출되는 등 금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됨. 축제는 크게 7개의 행사로 구분되고 세부적으로는 40여 가지가 넘는 행사들로 이루어짐

❍ 2017년 행사내용을 보면 금관가야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행사가 전체의 50%를 차지하여 금관가야 고도인 김해의 정체성과 축제의 주제성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함

❍ 지역의 특산물을 알리고 판매하는 행사와 지역민들과 관람객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경연대회, 페스티벌, 역사체험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방문객의 참여도를 제고함

❍ 가야문화축제 초기에는 수로왕탄강·건국·결혼, 길놀이, 전통문화예술행사 등으로 진행되었음. 이후 점차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올바른 인식 등을 위해 가야사학술발표회와 지역의 전통놀이인 석전놀이, 김해가락오광대등의 프로그램들이 추가되고 지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연계 행사를 보완하여 행사를 진행함. 이는 축제의 발전을 위해 기획과정에서의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잘 보여줌

❍ 현재 가야문화축제는 김해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홍보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관련 사진

축제 포스터

무대 퍼포먼스

뱃길체험

(그림3-6) 가야문화축제 행사사진

자료: 가야문화축제 홈페이지(http://www.gcfkorea.com)

(2) 의병제전

□ 개 요

❍ 행사명 : 의병제전

❍ 취 지 : 임난 의병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의병정신을 국민정신 운동으로 승화

❍ 일 시 : 매년 4월

❍ 장 소 : 의령군 일원

❍ 주 최 : 의령군

❍ 주 관 : (사)의병기념사업회

❍ 연 혁 : 1972년 ~ 2016년 44회 개최(17년 45회)

- 의병창의일인 4월 22일에 의령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모으는 군민의 날 행사와 함께 개최해온 문화예술행사임
- 2010년 6월 1일을 국가기념일인 '의병의 날'로 제정·공포(곽재우 장군이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켰던 음력 1592년 4월 22일을 양력으로 환산)
- 2015년, 2016년 LA한인축제에서 '의병제전'으로 개막식 장식
- 2017년 1월 19일 경상남도 지정 문화관광축제에 선정

□ 2017년 주요행사

❍ 2017년 주요 행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표3-6) 2017년 의병제전 주요 행사내용

구 분	행 사 내 용
공식행사	식전공연·축하비행, 기념식
전야제	의령의 혼불채화식(제례·채화·봉송), 향우의 밤 행사, 북놀이, 축등행렬, 의병의 혼불 안치, 불꽃놀이
주제행사	의병문화학교운영, 의병창의재현(의병의 함성), 의병출정 시가지 퍼레이드, 곽재우 유물 진품전, 변검 공연 및 매직콘스트
특별행사	의령큰줄땡기기, 이호섭가요제, 수박축제

구 분	행 사 내 용
체육행사	전국 남·여 궁도대회, 전국 무에타이 대회
민속행사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
체험행사	의병체험장 운영, 일반(전통공예) 체험장 운영, 의병맨손 물고기 잡기 체험, 의병말타기 체험, 곤충생태체험 및 전시, 오리보트 체험
문화행사	마상무예 공연, 의령집돌금농악 공연, 줄타기 관즐 놀음, 읍·면 농악공연, 다문화가족 전통음식축제, 한시백일장, 학생한글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전국시조경창대회, 문화가족 작품전시회, 청소년 한마음축제, 의령예술촌 문화예술공연
투어행사	의령9경투어, 부교 및 조형물(포토존)설치 운영
기타행사	소망등 달기, 전통향토음식 먹거리장터, 풍물야시장, 루미페스타(빛의축제), 충익사 및 의병박물관 야간개장, 구한말 의병사진전, 임진왜란의 영웅들 3D입체영화, 민속놀이 체험마당, 레이저 퍼포먼스 쇼,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

□ 축제 분석 및 시사점

❍ 2017년 축제는 크게 공식행사, 전야제, 주제행사, 특별행사, 체육·민속·체험·문화·투어·기타행사로 구분하여 각 행사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공식행사인 축하비행과 기념식을 시작으로 함. 전야제 행사로 의병의 혼불 채화식(차례·채화·봉송), 북놀이, 축등행렬과 불꽃축제를 시작으로 흥겨운 행사의 개막을 알림. 다음날 시가지 퍼레이드를 비롯하여 특별행사, 체육·민속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본격적인 의병제전이 시작됨. 그 외 의병 유적지 투어와 기타행사로 먹거리 장터, 풍물야시장, 충익사 및 의병박물관 야간개장 등 군민들과 관람객들이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됨

❍ 전체 행사에서 주제와 관련된 행사보다 공연이나 경연대회, 다양한 축제들이 행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의병의 역사성과 전통을 되살리고 의병정신을 보존·계승하기 위해서는 주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의 추가 기획이 요구됨

❍ 1592년 나라를 지키고자 창의한 의병들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받들기 위해 시작된 의병의 날 행사가 발전하여 전국민에게 애국심을 부각·고취시키는 의병제전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되고 있음

□ 관련 사진

축제 포스터

의병체험

행사전경

LA한인축제 의병제전 퍼레이드

(그림3-7) 의병제전 행사사진

자료: http://www.의병제전.kr, LA한인축제 의병제전 퍼레이드 아시아투데이 2016.9.28 자료

(3) 함안 아라문화제

□ 개 요

❍ 행사명 : 함안 아라문화제

❍ 취 지 : 아라가야의 오랜 역사를 축제로 승화시키고 지역민의 애향심 고취

❍ 일 시 : 매년 4월

❍ 장 소 : 함안공설운동장, 함주공원, 연꽃테마파크 등

❍ 주 최 : 함안군, 아라제위원회

❍ 주 관 : 함안군, 아라제위원회

❍ 연 혁 : 1983년부터 매년 아라제를 개최해오다 2004년에 군민의 의견을 따라 4월 15일을 군민의 날로 결정하고, 이후 4월 15일을 전후로 개최함. 2017년부터 함안아라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

□ 2017년 주요행사

❍ 2017년 주요행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표3-7) 2017년 함안 아라문화제 주요 행사내용

구 분	행 사 내 용
아라대왕 행차 및 천신제 체험	아라대왕 임명(왕관 및 장군검 수여), 가마 승차 및 행차, 천신제 재현체험, 아라가야 승전 재현
아라가야 병영문화체험	찰갑옷 입기, 전차타기, 철전쏘기, 노포쏘기 체험, 창던지기, 사신기 그리기, 철갑 기마타기, 병장기, 갑옷 전시, 편자 던지기, 기병전투 체험
아라가야 역사문화체험	왕관만들기, 활·석궁·목검 만들기, 아라가야 철기·토기·금속공예체험, 아라문양 캔들, 아라홍련 에코백 등
군민화합 행사	제기차기, 줄다리기, 그네뛰기, 함안군 농악 경연대회, 팔씨름대회, 윷놀이 대회, 널뛰기, 단체 줄넘기, 투호대회, 고리걸기 등
기타행사	함안처녀 뱃사공 전국가요제, 함안수박축제, 함안낙화놀이시연, 소원등거리 조성,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아라가야 전국농악경연대회, 세계댄스페스티벌, 각종 체험 및 축하행사

□ 축제 분석 및 시사점

❍ 2017년도는 아라문화제의 질적 변화 추구와 말이산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아라가야 체험행사 위주로 축제를 개편함. 아라대왕 행차 및 천신제 체험, 아라가야 병영문화체험, 아라가야 역사문화체험 등으로 행사가 이루어짐

❍ 또한 축제의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함안처녀 뱃사공 전국가요제, 함안수박축제, 함안낙화놀이시연, 전국농악경연대회, 세계댄스페스티벌 등 각종 대중행사와 경연이 이루어져 축제행사의 재미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

❍ 과거 축제의 경우, 민속문화체험, 전시행사, 경연대회, 축하행사와 각종 홍보·시식 등 주제보다 그 외의 볼거리, 먹거리, 체험행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음. 2017년에는 말이산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아라가야 관련 프로그램 위주의 행사가 많이 도입되어 주제성과 정체성이 한층 보강된 점을 평가할 수 있음

□ 관련 사진

말이산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원음악회

농요시연

가장행렬

아라가야 토기만들기

(그림3-8) 아라문화제 행사사진

자료: http://araje.or.kr

(4) 비사벌문화제

□ 개 요

❍ 행사명 : 비사벌문화제

❍ 취 지 : 예술제전을 통해 유서 깊은 창녕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 화합과 결속의 장으로 승화

❍ 일 시 : 매년 10월경

❍ 장 소 : 창녕읍 일원

❍ 주 최 : 창녕군, 창녕문화원

❍ 주 관 : (사)비사벌문화제전위원회

❍ 연 혁 : 2016년 30회 비사벌문화제를 개최

□ 2016년 주요행사

❍ 2016년 주요 행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표3-8) 2016년 비사벌문화제 주요 행사내용

구 분	행 사 내 용
전야제	유등점등식, 향토기원제, 불꽃놀이, 군민노래자랑 등
문화예술행사	한시백일장, 미술실기대회, 한글백일장, 청소년 어울마당, 전국시조경창대회, 마당극 등
전시행사	서예전, 수석전, 난 전시회, 야생화 전시회, 사진 전시회, 분재전시회, 우리차 시음회

□ 축제 분석 및 시사점

❍ 2016년 행사는 크게 전야제와 문화예술행사, 전시행사로 구분됨. 유등 점등식과 향토기원제를 거행함과 함께 행사가 시작됨. 2015년도에는 기존의 행사에서 '종로거리 페스티벌'을 기획해 창녕읍 종로거리에서 문화공연과 경연, 체험마당, 먹거리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로 축제의 새로운 활기를 불러일으킴

❍ 특히, 특별기념 사업으로 '신(新)보부상을 찾아라'는 주제로 창녕 상무사[9]를 재조명하는 현대판 보부상인 푸드 트럭을 설치하여 신개념의 보부상을 재현하기도 함

❍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되새기기 위해 진행되는 축제는 지역의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하며, 그와 더불어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주제와 관련된 프로그램 위주의 진행이 이루어져야 함. 이점에서 보면 축제 행사내용이 전반적으로 특색없이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행사 콘텐츠 보강이 요구됨

□ 관련 사진

향토기원제

축하공연

창녕 상무좌사(보부상)

종로페스티벌

(그림3-9) 비사벌문화제 행사사진

자료: news1, 2016.10.10 관련 기사에서 인용

9) 상무사는 우사(右司)는 보상(褓商), 좌사(左司)는 부상(負商)으로 구성되는데 창녕의 보부상은 상무좌사(商務左)소속. 출처 2016.10.10. news1.

(5) 토지문학제

□ 개 요

❍ 행사명 : 토지문학제

❍ 취 지 : 고 박경리의 삶과 대표 작품인 '토지'의 업적을 기림

❍ 일 시 : 매년 10월 둘째주

❍ 장 소 : 하동군 최참판댁 일원

❍ 주 최 : 하동군

❍ 주 관 : 토지문학제 추진위원회

❍ 연 혁 : 2001년부터 개최

□ 2016년 주요행사

❍ 2016년 주요 행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표3-9) 2016년 토지문학제 주요 행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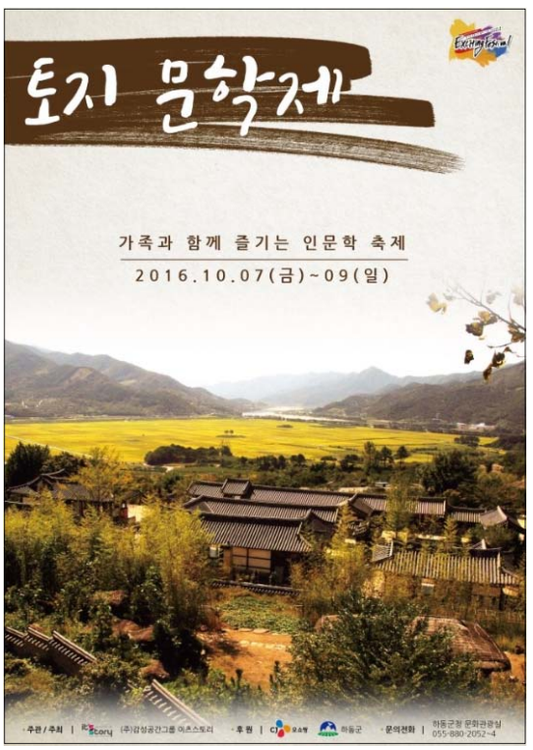
구 분	행 사 내 용
주요프로그램	가을풍경 그리기대회, 군민 시낭송대회, 토지 백일장, 전국 어르신 백일장, 전국 학생 휘호 백일장, 전통혼례 등
공연프로그램	박경리 시극, 놀이판 돌뫼공연, 축하공연, 전통국악공연, 음악과 함께 풍경속으로, 마당극 등
기타 프로그램	토지길 걷기, 문인의 밤, 슬로장터, 즉석 제기차기, 떡메치기, 민속놀이 경연대회 등

□ 축제 분석 및 시사점

❍ 2001년부터 시작된 토지문학제는 문학·경연·공연·체험·전시 등의 테마로 모두 40여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음. 특히 군민 시낭송대회는 어린이에서부터 노인, 다문화 이주여성들까지 참여기회가 부여되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함. 이외에도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먹거리, 놀거리가 어우러져 축제 분위기를 자아냄

❍ 토지문학제는 토지의 배경인 최참판댁과 그 일원에서 축제가 진행되어 장소성이 크게 강조됨. 또한, 시 낭송대회나 토지 백일장, 전국 학생 휘호 백일장 등 내·외국인,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축제 참여도를 제고함

□ 관련 사진



포스터

토지문학제 개막식

시낭송대회

(그림3-10) 토지문학제 행사사진

자료: 좌측 상단 부산일보 2016. 10.7 관련기사, 좌측하단 경남신문 2016. 10. 9 관련기사

(6) 남명선비문화축제

□ 개 요

❍ 행사명 : 남명선비문화축제

❍ 취 지 : 남명 조식선생의 삶과 정신을 기림

❍ 일 시 : 매년 10월

❍ 장 소 : 한국선비문화원구원, 산천재

❍ 주 최 : 산청군, 덕천서원

❍ 주 관 : 남명선비문화축제집행위원회

❍ 연 혁 : 2016년 40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선정 지역민속축제로서 조선시대 실천유학의 대가인 남명 조식 선생의 삶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10월에 축제 개최

□ 2016년 주요행사

❍ 2016년 주요 행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표3-10) 2016년 남명선비문화축제 주요 행사내용

구 분	행 사 내 용
주요프로그램	남명선생묘소참배, 식전공연 및 남명제례, 기념식, 뮤지컬, 전국한시백일장, 학생백일장, 남명학생 휘호대회, 국악공연, 마당극공연, 연극공연, 민속놀이 경연대회, 전통혼례재현, 전국 시조경창대회
상설행사	남명유적전시, 가훈우수작품전시, 국립공원사진전, 민속놀이체험, 인쇄문화체험, 서예체험, 선비복장 입어보기, 남명관련도서판매, 야생차약초 전시 및 판매, 기념품특산물판매장운영
축하공연	추억의 팝송·OST, 대취타로 여는 축제한마당

□ 축제 분석 및 시사점

❍ 선비문화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지역민속축제로 매년 10월 양일간 진행됨. 퇴계 이황선생과 함께 경상도를 대표하는 유학자인 남명선생의 경의사상을 기

리고 산청의 선비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한 행사임

❍ 행사내용은 의병·남명선생을 주제로 한 뮤지컬, 휘호대회, 한시백일장과 선비문화체험 등 조선시대 선비정신과 유교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역의 특산물 전시와 판매 등으로 구성되어 축제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했음

❍ 하지만 행사의 주제성이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행사콘텐츠의 운영에는 일부 문제를 안고 있음. 축제를 대표하는 특색 있는 킬러 콘텐츠의 기획과 운영이 필요함

□ 관련 사진

남명제례

공연 전경

(그림3-11) 남명선비문화축제 행사사진

자료: 산청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http://www.sancheong.go.kr)

(7) 거창한마당축제

□ 개 요

❍ 행사명 : 거창한마당축제

❍ 취 지 : 군민의 화합과 단결 도모

❍ 일 시 : 매년 9월

❍ 장 소 : 거창군 시내 및 스포츠파크 일원

❍ 주 최 : 거창군, 거창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주　관 : (사)아람예술제위원회, 거창군 체육회, 사과마라톤대회조직위원회

❍ 연　혁 : 1982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따로 개최해오던 군민의 날, 아림예술제, 체육대회, 평생학습축제, 녹색곳간 농산물대축제, 거창 사과마라톤대회를 2012년부터 거창군민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축제와 체육대회를 통합하여 거창한마당 대축제로 개최

□ 2016년 주요행사[10)]

❍ 2016년 주요 행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표3-11) 2016년 거창 한마당축제 주요 행사내용

구　분	행 사 내 용
축제 행사	전야제, 야시장, 거창대동 풍물한마당 등
기획 특별행사	생활예술 페스티벌, 수석 전시회 등
전시회	시화전, 경남미술 초대작가전, 사진공모전, 아람사진전, 아람연우회 회원전, 아람서예공모대전 등
경연	학생글쓰기 한마당, 경남미술실기대회, 경남음악경연대회, 아람서예공모대전, 전국무용경연대회, 전국 국악경연대회, 군민노래자랑, 동화구연대회 등
기타 행사	평생학습 홍보 및 체험, 마라톤대회, 농산물 전시장·판매장, 체험행사 등

□ 축제 분석 및 시사점

❍ 2016년 축제는 아람예술제, 평생학습박람회를 비롯하여 각각 실시되었던 문화행사가 통합되면서 프로그램 구성이 다양화됨. 또한 강변둔치의 라이트 쇼는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킴. 군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전시하고 판매를 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홍보에 기여하며, 향토음식점의 운영으로 거창지역의 토속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등 축제 콘텐츠의 다양화에 힘씀

❍ 관람객과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서 교통의 혼잡을 방지하여 축제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함

10) 세부 축제명으로 구분되어 있는 행사내용을 특성별로 구분 정리함.

❍ 축제의 성격이 주민 단합을 위한 일반적인 종합 축제로 축제 콘텐츠상의 주제성이나 정체성, 여타 지역 단위 주민화합형 축제와의 차별성 등이 없어 축제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 관련 사진

축제 포스터

퍼레이드

개막식 공연

노래자랑

농산물 전시

(그림3-12) 거창한마당축제 행사사진

자료: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8) 대야문화제

□ 개 요

❍ 행사명 : 대야문화제

❍ 취 지 : 지역 문화유산 계승과 대야성 전투에서 장렬히 산화한 죽죽장군의 넋을 기리고 합천민의 화합과 번영을 위해 시행

❍ 일 시 : 매년 9월

❍ 장 소 : 합천읍 일원

❍ 주 최 : 대야문화제전위원회

❍ 주 관 : 유관기관, 사회단체

❍ 연 혁 : 2016년 32회 개최

- 합천군의 지역축제로서 전통문화 계승 및 주민화합의 목적으로 군민의 날 기념행사 및 군민체육대회와 함께 시행되고 있음
- 1982년부터 매년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개최

□ 2016년 주요행사

❍ 2016년 주요 행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표3-12) 2016년 대야문화제 주요 행사내용

구 분	행 사 내 용
기간 전후행사	판타스틱 불꽃쇼(전야제), 소리를 춤춘다(공연), 군민휘호대회, 등터널, 황강백일장, 대야성 국악경연대회, 향토음악회, 문학의 밤
체험·전시행사	연묵회 회원전, 합천미협전, 합천문인화회 회원전, 합천야생화동호회 회원전, 서각회 회원전, 시회전시회, 아나바다 장터, 합천 전통규방공예 전시회, 천연염색 전시 및 체험, 가야산 별빛농장 힐링체험 등

□ 축제 분석 및 시사점

❍ 대야문화제는 가야의 정기, 화랑의 예지와 용기를 계승하고 장렬히 산화한 충신 죽죽의 넋을 되살려 애향애국의 숭고한 정신으로 승화시킴과 더불어 군민화합,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축제의 취지가 있음

❍ 축제는 크게 기간전후 행사와 체험·전시행사로 구분됨. 하지만 축제의 취지와 부합하는 콘텐츠, 즉 가야, 화랑, 대야성, 충신 죽죽 등 관련 역사적 배경이나 주제에 부합하는 콘텐츠가 미약하여 축제의 원래 취지나 주제성이 살아나지 못하여 일반적인 타 지역 주민 화합축제와 차별성이 부족함

❍ 향후 축제의 주제성과 정체성 부각을 위한 관련 축제 콘텐츠의 강화가 필요함

□ 관련 사진

서막식 전경

추모제

풍물단 공연

퍼레이드

(그림3-13) 대야문화제 행사사진

자료: 합천군 문화관광과 홈페이지(http://culture.hc.go.kr)

2) 국내 유사 축제 사례

(1) 한성백제문화제[11]

□ 개 요

❍ 일 시 : 매년 10월

❍ 장 소 : 올림픽공원 평화의문광장, 석촌동고분군, 경당역사공원, 위례성대로, 한성백제박물관 등

❍ 주 최 : 송파구·송파문화원

❍ 주 관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 2016년 주요행사

❍ 슬 로 건 : 한성백제! 송파를 빚다. 사람을 담다!

❍ 대표프로그램 : 한성백제체험마을, 역사문화거리행렬

❍ 주제프로그램 : 한성백제 혼불채화식, 동명제(한성백제 고분제), 몽촌토성 성곽걷기

❍ 참여프로그램 : 전국 청소년예능동아리 경연대회, 한성백제 어울마당, 몽촌한성백제 전국창작동요제, 호돌이열차와 함께하는 한성백제유적 발굴현장 체험, 한성백제 학술대회 등

❍ 기타 프로그램 : 한성백제 민속재현(도리깨놀이), 한성백제 갈라퍼레이드, 한성백제 창작뮤지컬, 한성백제 착한콘서트, 해자 수변무대 공연 등

□ 축제 분석 및 시사점

❍ 한성백제라는 특정 주제성을 부각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이 보이는 축제로, 이를 위해 한성백제 퍼레이드와 가장행렬 등의 행사를 통해 한성백제 역사문화의 분위기를 이끌어냄. 또한, 백제시대의 사건이나 인물 등을 소재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제공하여 축제의 이미지를 부각시킴

❍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축제의 취지를 잘 살림

11) 개요 및 행사내용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2016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2017의 110쪽을 참고함.

❍ 하지만 한성백제라는 특정 주제를 잘 살릴 수 있는 특화 콘텐츠의 수와 콘텐츠 세부내용 측면에서의 차별성 부족이라는 일부 한계를 보임. 즉, 콘텐츠 세부내용에서 공주·부여 등지의 다른 백제문화와의 차별성이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축제의 주제를 한정하여 더욱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관련 사진

역사 문화거리 행렬

한성백제 체험마을

한성백제 체험마을 퍼포먼스

청소년예능 동아리공연

(그림3-14)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사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6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2017의 347쪽.
(http://www.baekjefest.com)

(2) 고령 대가야 체험 축제

□ 개 요

❍ 일 시 : 매년 4월

❍ 장 소 :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대가야읍 일원

❍ 주 최 : 고령군

❍ 주 관 : 사)대가야체험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표3-13) 2017년 대가야 체험 축제 주요 행사내용

구 분	행 사 내 용
주제존	페레이드 '대가야의 진군', 역사재현극
스토리텔링존	건국존: 대가야 건국 보물찾기, 정견모주 퍼즐 맞추기 가얏고존: 울림통 제작체험, 열 두줄의 현과 안족 제작체험, 미니 가야금 제작체험, 가야금 연주체험 용사존: 대가야 칼 만들기체험, 활 만들기 체험, 갑옷 및 투구 만들기체험, 대가야 무예체험, 역사체험게임, 대가야 용사선발대회(성인) 토기존: 대가야 토기제작체험, 대가야 토기무늬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존	생활존: 대가야 움집 제작체험, 바비큐존, 복식체험, 저울추 무게달기체험, 흙구슬 놀이체험 철기존: 대가야 대장간 체험 및 철기관람 예술존: 대가야 금동관 제작체험, 대가야 장신구 제작체험, 귀면화 제작체험, 암각화그리기 체험, 탁본체험, 페이스페인팅체험, 판박이체험 문화존: 대가야 순장체험
연계행사	대가야왕릉제, 고령가왕선발대회, 악성우륵추모제, 매운당이조년선생 추모 전국백일장 개최, 상가활성화 시장축제, 뮤지컬 '가얏고'공연, 가얏고음악제(군민상 시상식)
부대행사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 지붕위에 핀 예술 '고령의 기와', 고상가옥 생활체험, 축제장 소규모 공연, 마당극 '금산재아리랑'공연, 인형극 '호랑이 부인과 대가야 사또'공연, 대가야 스토리텔링 대회
기타	딸기수확체험, 녹색농촌마을체험, 녹색테마생활관체험, 대가야문양 우편엽서만들기, 두부빈대떡, 콩국만들기, 참외스무디만들기, 딸기케익만들기, 수박 석고방향제 만들기, 딸기모자 만들기, 멜론체험 등

□ 축제 분석 및 시사점

❍ 대가야라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 조성된 역사테마관광지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를 위한 대가야 문화 관련 각종 체험콘텐츠를 개발·운영함으로서 주제와의 부합성이 잘 드러남

❍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중 대가야의 성격과 차별성을 어필할 수 있는 대표프로그램이 없어 전체적으로 다른 역사체험축제와의 차별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내용적 한계가 있음

□ 관련 사진

대가야뮤지컬

퍼레이드

가야금 만들기체험

바비큐존(고기굽기)

(그림3-15) 대가야체험축제 행사사진

자료: 고령군 문화관광과 홈페이지(http://tour.goryeong.go.kr)

(3) 부산 동래읍성 역사축제[12)]

□ 개 요

❍ 일 시 : 매년 10월

❍ 장 소 : 동래문화회관, 읍성광장, 온천장 일원

❍ 주 최 : 부산광역시 동래구

❍ 주 관 : 동래문화원·동래읍성역사축제추진위원회

□ 2016년 주요행사

❍ 대표행사 : 동래부사행차길놀이, 동래성전투실경뮤지컬, 동래세가닥줄다리기, 동래온천용왕제 길놀이, 동래장터재현, 동래파전 주막, 동래부사 송상현 이야기 인형극 등

❍ 공연프로그램 : 동래부사집무재현(마당극), 여는 마당(불꽃쇼), 전통줄타기공연, 전통민속공연(동래학춤, 동래야류 등), 국악관현악단, 숲속프린지음악회, 전통무술택견공연, 여성오케스트라공연, 힐링콘서트 등

❍ 참여·체험행사 : 읍성민 씨름대회, 저울추달기 체험, 동래읍성 성곽 밟기 역사 탐방, 동래파전주막운영, 장영실 과학체험전, 엽전체험, 대장간체험, 도자기체험, 제기차기왕 선발대회, 국궁 및 무술체험, 미래우체통, 한복체험, 향교체험 등

❍ 부대행사 : 옥토버페스트(농심호텔 맥주축제), 동래세일대축제, 사회적기업·마을기업홍보관 운영, 명륜1번가 음식품평회, 먹거리장터 운영, 주민자치회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 임진왜란 424주기 추모제향 등

□ 축제 분석 및 시사점

❍ 임진왜란 발발 당시 왜군에 대항하여 장렬한 최후를 맞이한 동래성 전투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한 역사문화축제임. 동래성전투 실경뮤지컬 등 동래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전통성을 잘 드러낸 콘텐츠를 포함하여 축제의 주제성을 부각시킴

12) 개요 및 행사내용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2016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2017의 116쪽을 참고함.

❍ 하지만 일부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들의 경우 축제 주제와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일반적인 축제프로그램으로 다른 역사문화축제와의 차별성이 부족한 축제콘텐츠로 지적됨. 동래읍성역사축제의 주제와 부합하고 축제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특색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2016년 축제 방문객 조사결과, 동 축제 방문객의 90%이상이 동래구민 및 부산시민으로 지역 축제로의 의미와 성과는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외부 관광객 유도 등 축제의 부수적 효과 창출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13] 축제의 부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지관광객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의 전개와 마케팅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관련사진

동래성전투 실경 뮤지컬

세가닥 줄다리기

전투재현

길놀이

(그림3-16) 동래읍성 역사축제 행사사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6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2017의 347쪽.
동래읍성 역사축제 홈페이지(http://festival.dongnae.go.kr)

13)문화체육관광부, 『2016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2017의 117쪽.

(4) 군산시 시간 여행축제

□ 개 요

❍ 행사명 : 군산 시간 여행축제-근대 추억을 만나다

❍ 취 지 :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수탈의 역사를 가진 군산을 알리고 지역공감대 형성

❍ 일 시 : 매년 9월

❍ 장 소 :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월명동 일원

❍ 주 최 : 군산시

❍ 주 관 : 군산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

❍ 연 혁 : 2012년도 첫 시행

□ 2017년 주요행사

❍ 2017년 주요 행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표3-14) 2017년 군산시 시간여행축제 주요 행사내용

구 분	행 사 내 용
축제프로그램	개막식행사(식전공연, 개막식, 축하공연, 불꽃퍼레이드), 3·1만세 퍼레이드, 군산항 밤 부두 콩쿠르
미션프로그램	각시탈과 보물찾기, 어린이 독립군 체험, 남승재가 만드는 독립자금(쌀가마 나르기, 쌀탑 쌓기, 미션공 체험게임)
체험프로그램	스템프 여행, 시간여행 인력거(인력거 투어), 전통놀이마당(말타기, 고누놀이, 팽이치기, 투호놀이, 닭싸움, 가마타기, 윷놀이, 팔자놀이, 승경도),
공연프로그램	동춘서커스·차력쇼, 마술·저글링 공연, FOREVER 대학가요제, 리마인드 웨딩마치, 헬로모던 피날레 한마당, 군산 어린이 합성 오케스트라 공연, 헬로 모던 음악회, 근대복장 댄스, 버스킹/퍼포먼스, 근대복장 체험 등

□ 축제 분석 및 시사점

❍ 군산은 근대문화도시로서 수탈의 역사가 서려있는 역사적 아픔이 있는 지역으로, 도시 곳곳에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 역사 현장임. 또한 한강이남 최초의 3.5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함.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근간으로 2012년부터 시행된 '군산 시간 여행축제'에서는 지역 역사성과 이를 부각할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프로그램들을 더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 근대속으로 시간여행을 하는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축제장 곳곳에서 일본순사, 조선인의 모습 등 근대복장을 한 진행자와 참석자, 관람객을 확인할 수 있어 축제의 이미지가 잘 부각됨. 2017년 올해 행사는 9월에 개최됨

□ 관련 사진

축제 포스터

3.5만세 퍼레이드

쌀가마 나르기

(그림3-17) 군산시간여행축제 행사사진

자료: 한국관광공사(http://korean.visitkorea.or.kr),
군산시간여행축제(http://festival.gunsan.go.kr)

(5) 부안군 부안마실축제

□ 개 요

❍ 행사명 : 부안마실축제

❍ 취 지 :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과 복을 나누는 축제로 부안군의 인지도 향상과 축제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일 시 : 매년 5월

❍ 장 소 : 부안군 일원

❍ 주 최 : 부안군

❍ 주 관 : 부안마실축제제전위원회

❍ 연 혁 : 2013년도 첫 시행

□ 2017년 주요행사

❍ 2017년 주요 행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표3-15) 2017년 부안마실축제 주요 행사내용

구 분	행 사 내 용
공식프로그램	개막공연: 복받는날 퍼레이드, 김덕수 사물놀이, 매창뮤지컬, 축하공연 폐막공연: 평양예술단공연, 대동한마당(강강술래)
오복마당 프로그램	풍복이 소리거리: 열린 음악회, 춤 경연대회, 이웃사촌 공연 한마당 등 강복이 체험거리: 붓글씨 여행, 체험부스 운영 등 재복이 장터거리: 세계 마실거리, show me BUAN, 천년의 빛깔 도자빛기, 오복 마실장터 등 휴복이 놀이거리: 가족 놀이터, 농촌이야기 등 자복이 추억거리: 맑은물총 테스티벌, 골목길 운동회, floor art 등
거리공연	오복의 재롱잔치, 위도 띠뱃놀이, 플래시몹, 전국 우수 농악공연, 전통문화놀이, 마실 유랑극단, 왕을 이겨라
연계프로그램	나도 청자장인 컨테스트, 다시(多-See) 부안투어, 전국농악경연대회, 청소년예능 경연대회, 감자 수확체험, 부안 오복 마실걷기, 매창문화제, 오복 먹거리 장터 등

□ 축제 분석 및 시사점

❍ 부안 마실축제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스토리를 입혀 축제의 정체성과 의미를 부여하여 프로그램화 함

❍ 축제의 연혁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나, 현대의 감각에 맞게 다양한 볼거리와 놀이거리, 즐길거리로 이루어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미션수행, 런닝마실', 청자장인 컨테스트, 청소년예능경연대회, 갯벌 조개잡이·물고기잡기 체험, 감자수확체험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체험거리로 방문객 참여를 유도함

❍ 부안 마실축제는 군민과 관광객의 소통과 화합의 일환으로 부안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소개함으로써 부안 관광홍보에 이바지 함

□ 관련 사진

도자기 빚기

오복이 캐릭터

퍼레이드

(그림3-18) 부안 마실축제 행사사진

자료: 한국관광공사 http://korean.visitkorea.or.kr

(6) 제주시 탐라문화제

□ 개 요

❍ 행사명 : 탐라문화제

❍ 취　지 : 전통문화예술·원형문화유산·참여문화·제주인 화합의 축전

❍ 일　시 : 매년 9월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탐라문화광장)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주　관 : 탐라문화제추진위원회

❍ 연　혁 : 1962년 제주예술제로 시작하여 1965년 한라문화제로 변경되었다가 2002년부터 탐라문화제로 진행되어 옴. 2017년 제56회 탐라문화제 개최 예정임

□ 2017년 주요행사

❍ 2017년 주요 행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표3-16) 2017년 탐라문화제 주요 행사내용

구　분	행 사 내 용
기원축제	만덕제, 탐라개벽 신위제, 개막퍼포먼스, 축하공연 등
제주문화가장 축제	탐라문화가장(假裝) 퍼포먼스, 가장(假裝) 퍼레이드, 참가자 거리퍼포먼스
제주문화원형 축제	제주 굿, 제주 민요, 강건장·탕건장·제주옹기 제작, 제주 전통술 제조, 초가장, 국내 중요무형문화재 초청공연, 탐라문화역사전, 제주인의 생활도구전, 해주해녀, 굿 문화, 말하기, 동화구연, 시낭송, 노래부르기 대회 및 연극 등
민속예술축제	걸궁, 민요, 민속예술 경연, 초등풍물경연, 중등민속가장 경연, 고등민속예술 경연 등
참여문화축제	예술체험행사, 초청공연, 한·중 우호축제, 국내외 문화교류 행사, 청소년 예능 경연대회, 미술실기대회, 문학백일장, 전시체험 행사, 전국민요경창대회, 제주농업문화행사, 제주학대회 등

□ 축제 분석 및 시사점

❍ 탐라 제주만의 섬 문화 역사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탐라인들의 삶과 문화를 재조명하는 기원축제를 시작으로 퍼포먼스와 퍼레이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 더불어 무형문화재 공연과 초·중·고등 민속예술 경연이 더해지면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높임

❍ 제주도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지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임. 이에 한·중 우호 축제와 국·내외 문화교류 행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주의 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기도 함

□ 관련 사진

탐라문화가장경연

학생민속예술축제

문화교류축제

탐라민속예술축제

(그림3-19) 제주 탐라문화제 행사사진

자료: 탐라문화제(http://www.tamnafestival.kr)

(7) 백제문화제

□ 개 요

❍ 행사명 : 백제문화제-한류원조 백제를 만나다.

❍ 일 시 : 매년 9월~10월

❍ 장 소 : 공주·부여일원(개막식:공주, 폐막식:부여)

❍ 주 최 : 충청남도·공주시·부여군

❍ 주 관 :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 연 혁 : 2017년 제63회를 맞이함

- 1955년 부여지역 유지들의 발기에 의해 '백제대제집행위원회'가 구성되어 '백제대제'를 거행한 것이 기원임
- 1965년 제11회부터 '백제문화제'로 개최되고, 1966년 12회부터 공부·부여 동시 개최함. 1979년 제25회 공주·부여 격년제를 개최해오다 2007~2008년 공주·부여 통합 개최로 세계적인 역사문화축제로의 도약 기반 마련

□ 2017년 주요행사

❍ 2017년 주요 행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표3-17) 2017년 백제문화제 주요 행사내용

구 분	행 사 내 용
대표 프로그램	부여: 백제역사문화행렬, 사비인 대동행렬, 백제사비천도행렬·백제사비정도고유제 공주: 웅진성 퍼레이드, 백제마을 고마촌(백제인형극장, 무령왕 행차퍼포먼스, 백제주거체험, 백제대장간체험, 백제복식체험, 짚풀공예, 농경문화체험, 풍물놀이 등), 백제 등불향연
제례불전	부여: 고천제, 백제혼불봉송, 팔충제, 삼산제, 백제사비정도고유제, 백제대왕제, 오천결사대 충혼제, 궁녀제, 백제수륙대제, 유왕산추모제 공주: 웅진백제 4대왕 추모제, 백제 무령왕 헌공다례, 영산대재
공연	부여: 백제 환화 불꽃쇼(전야제), 개막 축하공연, MBC 가요베스트, 군민 음악회, 7080 음악회, 사비콘스트, 지역예술단체공연, 지역전통공연

구 분	행 사 내 용
공연	공주: 전통 민속공연, 웅진판타지아 공연, 민속풍장단 풍물공연, 국악한마당, 대한민국 청소년축제
경연대회	부여: 백제태학박사 선발대회, 굿뜨래 로컬푸드 요리 경연대회, 청소년 백일장 사생대회, 전국 백제토기 경연대회, 사비인 노래자랑 왕중왕전, 초·중·고 농악(사물) 경연대회 공주: 백제가요제, 공주아리랑 경창대회
체험	부여: 백제 전통 씨름 체험장, 떡 나눔행사, 귀문의 부활(체험·전시·공연), 백제문화예술체험(백제 성쌓기, 미마지 탈그리기, 짚풀공예, 토기·와당 만들기, 백제 왕관 만들기 등) 공주: 금강부교 건너기, 다리위의 향연, 웅진골 체험마을(천연비누 만들기, 석궁·백제활 만들기, 신기전 체험, 백제장신구만들기 등)

□ 축제 분석 및 시사점

❍ 백제 망국의 원혼을 위로하는 제의에서 시작된 백제문화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여 관주도형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어우러진 민간주도형 축제의 종합문화축제로 변모·발전함

❍ 부여지역 유지들의 발기로 거행된 축제가 동일 문화권인 공주시와 통합 개최됨으로서 더 많은 볼거리와 이야기 거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역사문화축제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됨

❍ 2017년 올해 예정된 축제 행사를 보면, 전야제의 축하공연과 백제환화불꽃축제로 축제의 시작을 알림. 백제인의 모습을 재현한 복장으로 대형 길거리 퍼레이드 행렬과 정림사지에서의 정도고유제 재현, 금강교의 화려한 불빛과 백제유등의 전시와 금강의 수변무대에서의 무령왕스토리 뮤지컬 공연 등을 통해 시각과 감성의 만족을 충족시킬 예정임

❍ 그 외 다양한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를 마련하여 축제기간 내 공주·부여 곳곳에서 번성했던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임

□ 관련 사진

백제문화제 포스터

길거리 퍼레이드

금강교 유등

(그림3-20) 백제문화제 행사사진

자료: 백제문화제(http://www.baekje.org)

3. 관련 사례 시사점

1) 사례 시사점

❍ 전국 우수축제 사례를 보면 대부분 특정 주제와 관련 콘텐츠를 잘 구성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반면에, 경남지역 축제의 경우 대부분 유사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제의 주제나 성격에 부합하는 축제 콘텐츠는 부족한 상황임. 향후 경남지역 축제의 경우 뚜렷한 주제와 이와 부합하는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보여주어야 축제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방문객 및 참여자에게 큰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음

❍ 축제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전문적인 기획의 중요성이 잘 드러남. 축제의 주제 설정과 콘텐츠의 개발과정에서 단순히 백화점식의 나열적인 콘텐츠 구성 보다는 전문기획자의 참여를 통해 축제 주제의 발굴과 콘텐츠의 체계적인 구성, 행사 운영계획이 이루어져야 축제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할 수 있음

❍ 축제의 콘텐츠 개발과 구성에서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함. 지역축제의 기본은 지역민의 참여와 이들이 가지는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여 지역에 대한 애착과 지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지역민이 축제의 단순한 관람자가 아니라 축제의 직접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의 확보가 매우 중요함

❍ 지역축제의 주관단체는 해당지역의 여건, 축제의 여건과 성격, 배경과 역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경남지역의 시군 축제의 경우, 지역 해당 지자체와 축제추진위원회, 지역 문화원,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이 주로 주관하고 있음

2) 소가야문화제에 대한 시사점 분석

❍ 고성군의 소가야 문화제의 경우 축제의 성격은 주민화합형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다양한 행사프로그램으로 축제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나 매년 유사한 프로그램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매회 개최되는 축제의 분명한 주제나 콘텐츠의 부합성이 매우 부족함

- ❍ 이에 축제의 성격 재설정과 함께, 개최 년도의 축제의 주제 선정 및 관련 콘텐츠 구성 등 축제의 기획력을 강화해서 축제의 성격, 주제성과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 다른 지역 축제와의 차별성이 분명히 부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축제의 분명한 주제성의 부각과 함께 다양한 지역민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행사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필요함.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과 다문화이주여성 등의 많은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토록 해야 함. 또한 최근 활성화되어 있는 아마추어 문화예술인이나 동호회들의 참여를 통해 축제를 주민 참여형 축제화 함도 필요함
- ❍ 축제의 콘텐츠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이 부재하여 축제의 콘텐츠가 부실하며 전문적인 기획인력의 참여 역시 부재하여 축제의 질적 발전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축제의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
- ❍ 현재 축제 주관단체의 경우 전체 인력 구성이 열악하며, 또한 축제 기획 전문인력의 부재로 인해 축제 조직과 행사 구성, 세부 운영안 등에서 축제 기획 전문성이 떨어짐. 이에 축제 주관단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대안 강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 ❍ 소가야문화제 축제의 기본성격이 주민화합형 축제로 지역민의 참여와 화합이 우선시되는 축제라 할 수 있으나, 이와 함께 축제의 지역 홍보와 관광산업 측면의 추가 축제효과 창출에도 관심이 필요함. 이에 축제의 전국적인 홍보 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축제마케팅 노력이 요구됨

제4장

소가야문화제 현황 평가 및 설문 분석

제4장 소가야문화제 현황 평가 및 설문 분석

1. 소가야문화제 현황 분석 및 평가

1) 소가야문화제 현황 분석

❍ 소가야문화제의 재정립 및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먼저, 현행 소가야문화제의 현황을 분석하여 장단점 그리고 개선점 등을 도출하는 과정이 요구됨

❍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 문화관광축제 현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2016년 소가야문화제 행사 운영과 프로그램 등 소가야문화제 축제전반을 평가함

(표4-1) 문화체육관광부 축제 참관 평가 항목[14]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1) 축제기획서	○ 기획서의 전반적인 분야(축제 목적 및 방향, 콘텐츠, 운영, 발전가능성 등)
2) 축제의 특성/ 축제 콘텐츠	○ 축제 주제(소재)관련 대표 프로그램(Killer Contents)의 완성도
	○ 타 축제와의 소재 및 프로그램 차별성과 매력성 - 축제 방문객에 위한 특색있는 참여·체험 프로그램/축제 캐릭터 개발 등
	○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관된 프로그램 개발 - 연계투어/ 체류형 야간프로그램 등
3) 축제의 운영	○ 자원봉사자 교육시스템 등 행사장내 운영 효율성 ○ 축제 기획·운영 전문성 및 평가결과의 활용정도 ○ 축제 홍보의 효율성과 적절성 등 - 타 지자체 등과 축제 홍보·마케팅 협업, 지역 외 전국단위 홍보 등
	○ 접근성·공간배치 등 행사장 환경 및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운영 적절성
	○ 지역주민의 참여 및 협조 수준
	○ 축제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등 관람객 안전관리 체계 확립
4) 축제발전성	○ 지방자치단체장의 육성의지 등 성장가능성
	○ 안정적인 축제(상설)조직체 구성 및 운영여부, 축제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 여부
5) 축제의 성과	○ 축제 관련 관광객 유발 정도 및 국내외 인지도(홍보효과 등)
	○ 방문객 만족도 및 지역경제 효과
	○ 방문객 수 집계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정도

14) 문화관광체육부, 『2016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2017의 109쪽을 인용함.

(1) 소가야문화제 축제 기획 및 콘텐츠

❍ 소가야문화제의 기획 및 콘텐츠 부분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먼저, 현재 동 행사를 주관하는 소가야문화보존회의 경우, 인력 구성이나 축제 전문기획 인력 등이 부재한 관계로 전문적인 축제 기획과 운영 세부안 마련 등에서 전문성이 떨어짐

❍ 소가야문화제의 행사프로그램을 보면 콘텐츠의 다양성은 있으나 소가야문화제만의 주제성과 정체성, 차별성을 보이는 킬러콘텐츠가 없음. 타 지역 축제에서도 흔히 보이는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어 축제의 유인력이나 방문객 만족도 제공 등에서 일부 문제를 안고 있음

❍ 소가야문화제의 이름이 상징하듯 축제의 중심은 소가야라는 기본 주제를 담아야 하나 소가야를 담은 콘텐츠는 거의 없음. 향후 소가야문화제의 콘텐츠 측면에서 소가야나 이후 고성지역의 역사적 배경이나 고유한 전통문화 등을 창의적으로 스토리텔링하고 콘텐츠화한 많은 행사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함

❍ 또한, 소가야문화제 경우 행사프로그램 측면에서 매회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어 개최년도 별 행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없음. 현재 많은 경남지역 유사 축제에서는 개최년도 별로 그해의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행사 프로그램을 발굴·진행하여 매년 축제를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방문객에게 흥미와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코자 노력 중 임. 이는 한번 찾아온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매년 축제를 찾아오게 방문객을 유인하는 동기가 됨. 소가야문화제의 경우도 개최 주기별로 특정 축제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이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획 콘텐츠를 발굴·운영해야 함

❍ 또한, 주요 축제 행사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농악경연대회 등에서는 참가인력의 모집과 연습 등에서 점차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고령화된 지역의 주민 특성상 참여가능 인력의 부족과 연습시 지도인력의 부족, 연습시간의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에서 기인함. 향후 축제의 자발적 주민참여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런 경연프로그램의 운영 방법상의 개선 등도 점차 고민해야 할 필요성도 있음

❍ 축제 행사 프로그램 구성시 방문객과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발굴이 필요함. 또한, 지역 다문화가정의 참여프로그램의 구성도 고성군의 인구 구성상 필요로 함

❍ 축제개최시 이와 함께 방문객에게 지역의 다른 역사문화자원이나 관광자원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함. 축제 방문객이 지역의 다른 자원을 체험하고 관광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축제 연계 투어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도 고려해야 함

(2) 소가야문화제 운영

❍ 소가야문화제의 경우 현재 소가야문화보존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고성군과 지역의 관련 단체에서 후원·지원하고 있음

❍ 소가야문화보존회의 경우, 조직 구성상 축제의 전문성이 떨어지며, 축제기획과 운영계획 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함. 향후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관단체의 전문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 소가야문화제의 경우 축제의 종합평가와 그 결과의 피드백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축제 기간 동안 자체적인 축제 운영평가 실시와 그 결과를 다음 축제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축제의 행사프로그램 개선 및 보완과 점진적인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축제 홍보부분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함. 소가야문화제가 지역차원의 주민화합 축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언론 홍보와 함께 다양한 대내외 마케팅이 반드시 필요함

(3) 소가야문화제 발전성 및 성과

❍ 소가야문화제에 대한 고성군의 육성의지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함. 축제의 질적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관심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 도출에 적극적임

❍ 또한, 축제 운영부분에 대한 진단과 개선 의지가 있어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함. 한편, 현재의 주관단체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 능력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개선방안 도출이 조속히 필요함

❍ 소가야문화제의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고성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의해 충분한 축제 예산지원이 어려워 축제 예산 여건환경이 긍정적이지 않음. 이는 경

남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시군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축제예산의 합리적인 집행과 운영이 요구됨

❍ 지난 축제에 대한 축제 성과부분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이루어지 않아 방문객 만족도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축제의 성과에 대한 진단이 어려움. 향후 축제 개최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그 효과를 진단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함

2) 소가야문화제 SWOT 분석

❍ 소가야문화제의 향후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문화제 관련 여건 환경을 SWOT 분석하고 향후 발전 전략을 도출해 보면 표4-2와 같음

(표4-2) 소가야문화제 SWOT 분석 및 발전전략

내부역량 / 외부환경	Strengths (강점)	Weakness (약점)
	· 고성군의 축제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의지 · 소가야라는 고유한 역사적 배경 및 특화 소재 보유 · 지역민의 축제 자긍심 · 축제 연계자원 풍부	· 축제 재정의 한계 · 축제 주관단체의 전문성 및 기획력 부족 · 축제 참여 가능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Opportunities (기회)	**S O 전략**	**W O 전략**
· 축제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고성군의 적극적 관심 · 중앙과 경남도의 축제 지원 강화	**·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 축제 방향 정립 - 축제 운영 및 세부프로그램 개선	**· 축제 콘텐츠 강화 및 운영방법 개선** - 군민 요구에 따른 콘텐츠 운영 - 축제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개발 - 축제 주관 단체의 전문성 확보
Threats (위협)	**S T 전략**	**W T 전략**
· 지역경제의 불황에 따른 인구 감소 및 재정 악화 지속 · 타 지역축제와의 경쟁 심화	**· 소가야문화제의 축제 차별성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축제의 고유성 확보 및 타 자원과의 연계 강화 - 축제의 사회문화적 역할 재정립	**· 축제 환경 개선 및 가용자원 확보** - 축제 서비스 개선 및 접근성 확보 - 재원 및 인력 자원의 확보

2. 소가야문화제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고성군 소가야문화제 재정립 및 발전방안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2) 조사설계

❍ 조사대상 : 고성군민 470명

❍ 표본추출방법 : 비례할당추출법(연령, 성별) + 단순임의추출법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4.52%p

❍ 조사방법 :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 설문항목 : 우수 프로그램, 개선 필요 프로그램, 향후 가장행렬 시행 방안, 읍면 농악경연대회 추진 방향, 소가야문화제 개최 주기, 기간, 주관 단체 등

(3) 자료분석

❍ 빈도분석, 기술통계량

(4) 설문응답자 주요 현황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244명(51.9%), 여자가 226명(48.1%)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가 48명(10.2%), 30대가 60명(12.8%), 40대가 87명(18.6%), 50대가 111명(23.7%), 60대 이상이 163명(34.8%)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에 따라 고성읍이 181명(38.6%), 면지역이 288명(61.4%)으로 나타남

(표4-3) 응답자 특성(전체)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244	51.9
	여자	226	48.1
	전 체	470	100.0
연령	20대	48	10.2
	30대	60	12.8
	40대	87	18.6
	50대	111	23.7
	60대 이상	163	34.8
	전 체	469	100.0
거주지역	고성읍	181	38.6
	면지역	288	61.4
	전 체	469	100.0

❍ 면지역을 살펴보면, '거류면'이 44명(15.3%), '회화면'이 42명(14.6%), '동해면'이 33명(11.5%), '하이면'이 26명(9.0%) 순으로 나타남

(표4-4) 응답자 특성(면지역 비교)

구 분	빈도(명)	비율(%)
삼산면	18	6.3
하일면	18	6.3
하이면	26	9.0
상리면	18	6.3
대가면	18	6.3
영현면	8	2.8
영오면	16	5.6
개천면	13	4.5
구만면	12	4.2
회화면	42	14.6
마암면	22	7.6
동해면	33	11.5
거류면	44	15.3
전 체	288	100.0

2) 설문조사 결과

(1) 소가야문화제 프로그램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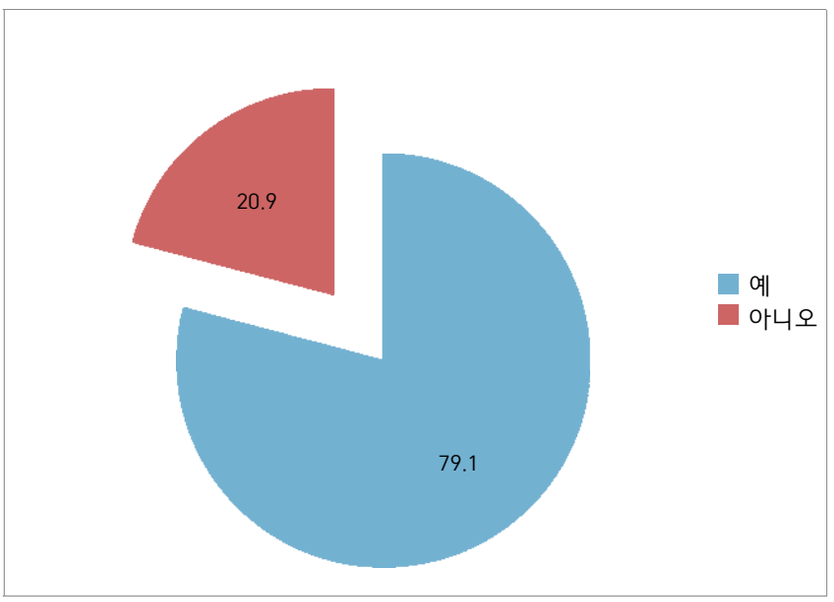
□ 과거 소가야문화제 방문여부

❍ 과거에 소가야문화제에 참여하였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371명(79.1%)이 '예'라고 응답하였으며, 98명(20.9%)이 '아니오'라고 응답함

❍ 연령에 따라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20대는 45.8%로 나타난 반면, 30대부터는 80% 가까이로 나타나 20대의 방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4-5) 과거 소가야문화제 방문여부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 체
예	22 (45.8)	49 (81.7)	75 (86.2)	88 (79.3)	137 (84.0)	371 (79.1)
아니오	26 (54.2)	11 (18.3)	12 (13.8)	23 (20.7)	26 (16.0)	98 (20.9)
전 체	48 (100.0)	60 (100.0)	87 (100.0)	111 (100.0)	163 (100.0)	469 (100.0)



(그림4-1) 과거 소가야문화제 방문여부(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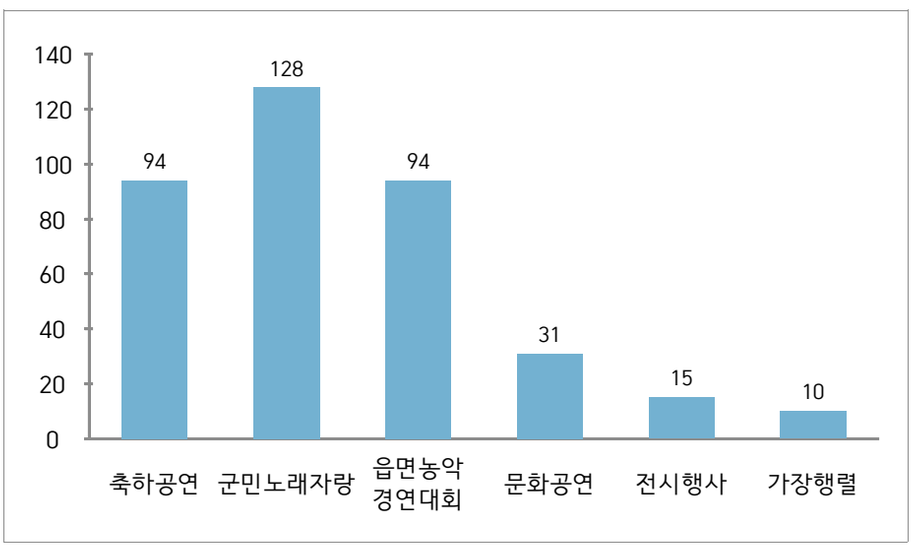
□ 인상 깊은 프로그램

❍ 소가야문화제 행사 시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으로 응답자 중 128명(34.4%)이 '군민노래자랑'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축하공연'과 '읍면농악경연대회'가 각각 94명(25.3%)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가장 인상깊었던 프로그램으로 20대는 '축하공연', 30대 이상은 '군민노래자랑'이라고 응답함

(표4-6) 인상 깊은 프로그램(단위: 명, %)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 체
축하공연	13 (54.2)	18 (35.3)	20 (26.3)	23 (25.6)	20 (15.3)	94 (25.3)
군민노래자랑	3 (12.5)	19 (37.3)	23 (30.3)	29 (32.2)	54 (41.2)	128 (34.4)
읍면농악 경연대회	3 (12.5)	8 (15.7)	16 (21.1)	23 (25.6)	44 (33.6)	94 (25.3)
문화공연	2 (8.3)	5 (9.8)	9 (11.8)	9 (10.0)	6 (4.6)	31 (8.3)
전시행사	3 (12.5)	-	5 (6.6)	5 (5.6)	2 (1.5)	15 (4.0)
가장행렬	-	1 (2.0)	3 (3.9)	1 (1.1)	5 (3.8)	10 (2.7)
전 체	24 (100.0)	51 (100.0)	76 (100.0)	90 (100.0)	131 (100.0)	37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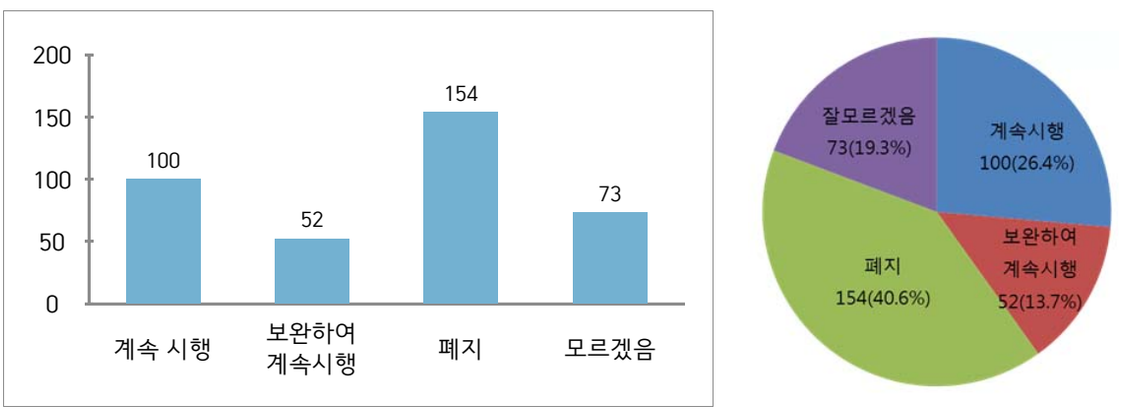
(그림4-2) 인상 깊은 프로그램(단위: 명)

□ 향후 가장행렬 시행 방안

❍ 향후 가장행렬 시행 방안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154명(40.6%)이 '폐지'라고 응답하였으며, 100명(26.4%)은 '계속 시행', 52명(13.7%)은 '보완하여 계속 시행'이라고 응답함

(표4-7) 향후 가장행렬 시행 방안(단위: 명, %)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 체
계속 시행	6 (25.0)	9 (17.6)	21 (28.0)	27 (30.0)	37 (26.6)	100 (26.4)
보완하여 계속 시행	1 (4.2)	5 (9.8)	9 (12.0)	8 (8.9)	29 (20.9)	52 (13.7)
폐지	11 (45.8)	27 (52.9)	32 (42.7)	42 (46.7)	42 (30.2)	154 (40.6)
모르겠음	6 (25.0)	10 (19.6)	13 (17.3)	13 (14.4)	31 (22.3)	73 (19.3)
전 체	24 (100.0)	51 (100.0)	75 (100.0)	90 (100.0)	139 (100.0)	379 (100.0)



(그림4-3) 향후 가장행렬 시행 방안(단위: 명)

□ 폐지 고려 프로그램

❍ 읍면농악경연대회', '고성인의 밤', '가장행렬', '무료주점', '알뜰도서 교환시장', '전국시조 경창대회', '틴틴 청소년 탑밴드 경연대회', '군민·출향인 민속경기', '한글 백일장', '전시행사' 등이 있었음

□ 개선 프로그램

❍ 읍면 농악경연대회 : '고성전통농악이 아님, 그래서 폐지하는 게 맞음', '문화제 행사로서 우리군 전통농악보존 목적이 아님', '농악단 회원 수집이 안됨, 고령화 문제', '처음은 신명나는데 똑같은 내용을 14번 들으니까 지겹다, 참여팀을 축소해야 됨', '인원모집 어렵다', '읍면별 출전을 지양하고 권역별 출전 희망', '본경기장에서 개최', '읍면농악대의 관리 필요(예산확충)', '즐기는 것이 아니라 순위매기기가 우선이 되고 있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음

❍ 고성인의 밤 : '주최측을 위한 행사가 아닌 군민과 방문객을 위한 축제가 되어야 함', '홍보 필요'

❍ 고성 군민의 날 기념식 : '기념식 행사가 불필요하게 길다'

❍ 군민노래자랑 : '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야 되나 초대가수(고성연예인협회) 노래자랑대회인 것 같음'

❍ 알뜰도서 교환시장 : '홍보 활성화 필요'

❍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밴드경연대회 : '합쳐서 하나의 대회로 개최'

❍ 지역먹거리장터 : '야시장 전문업체 운영으로 비싼 가격과 낮은 질이 문제임'

❍ 전시마당 : '전시장을 운동장 안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 '볼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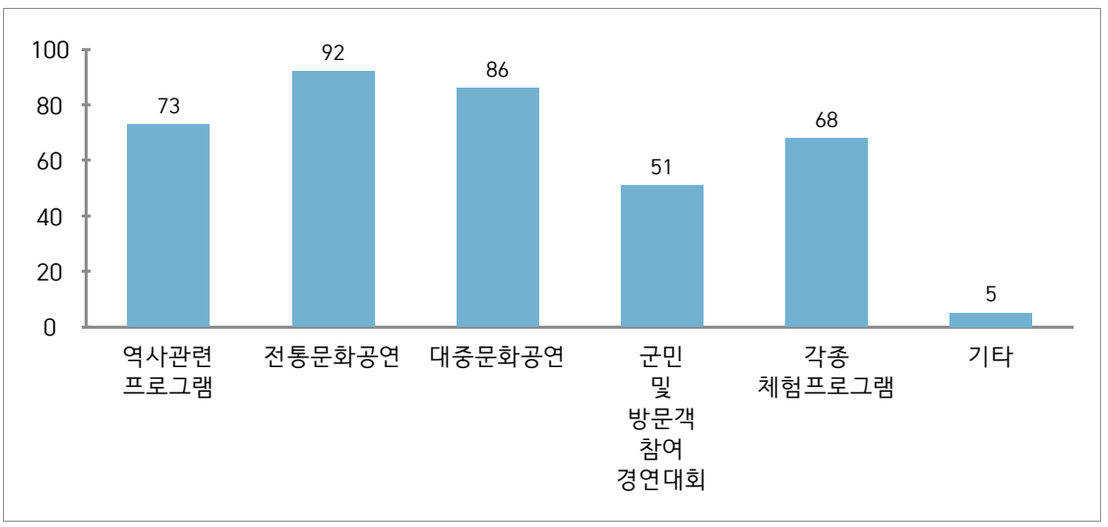
□ 발전 희망 프로그램

❍ 향후 소가야문화제에서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통문화공연'이 92명(24.5%), '대중문화공연'이 86명(22.9%), '역사관련 프로그램'이 73명(19.5%)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가장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으로 20대-40대는 '각종 체험프로그램', 50대 이상은 '전통문화공연'이라고 응답함

(표4-8) 발전 희망 프로그램(단위: 명, %)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 체
역사관련 프로그램	7 (29.2)	5 (10.0)	10 (13.3)	19 (21.6)	32 (23.2)	73 (19.5)
전통문화공연	1 (4.2)	7 (14.0)	13 (17.3)	29 (33.0)	42 (30.4)	92 (24.5)
대중문화공연	3 (12.5)	14 (28.0)	18 (24.0)	19 (21.6)	32 (23.2)	86 (22.9)
군민 및 방문객 참여 경연대회	5 (20.8)	8 (16.0)	12 (16.0)	10 (11.4)	16 (11.6)	51 (13.6)
각종 체험프로그램	8 (33.3)	16 (32.0)	21 (28.0)	10 (11.4)	13 (9.4)	68 (18.1)
기타	-	-	1 (1.3)	1 (1.1)	3 (2.2)	5 (1.3)
전 체	24 (100.0)	50 (100.0)	75 (100.0)	88 (100.0)	138 (100.0)	37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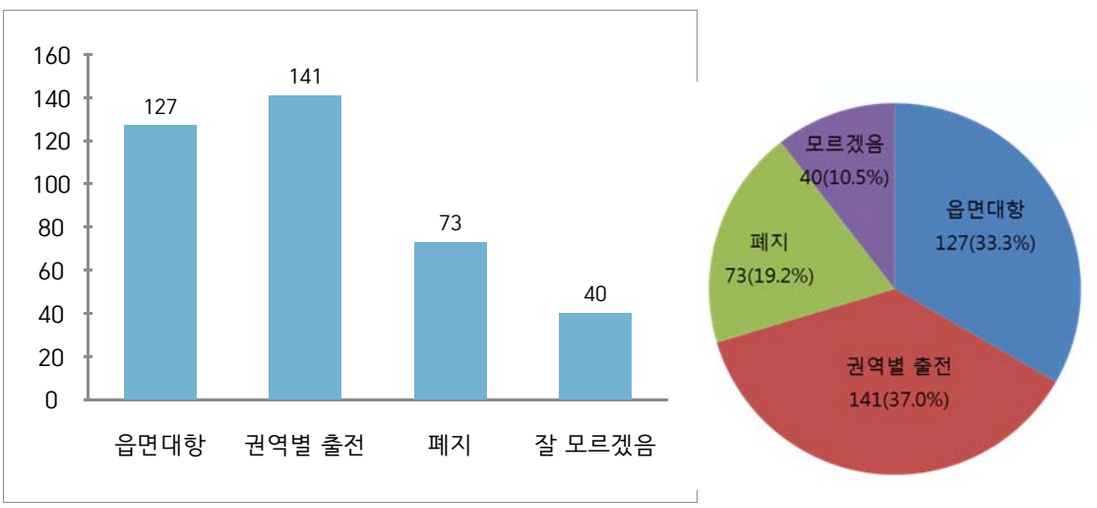
(그림4-4) 발전 희망 프로그램(단위:명)

□ 읍면농악경연대회 추진 방안

❍ 소가야문화제 행사기간 중 읍면농악경연대회 추진 방안으로 '권역별 출전'이 141명(37.0%), '읍면대항'이 127명(33.3%), '폐지'는 73명(19.2%)으로 나타남

(표4-9) 읍면농악경연대회 추진 방안(단위: 명, %)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 체
읍면대항	7 (29.2)	9 (18.0)	26 (33.8)	30 (33.3)	55 (39.3)	127 (33.3)
권역별 출전	10 (41.7)	24 (48.0)	25 (32.5)	36 (40.0)	46 (32.9)	141 (37.0)
폐지	5 (20.8)	16 (32.0)	16 (20.8)	18 (20.0)	18 (12.9)	73 (19.2)
잘 모르겠음	2 (8.3)	1 (2.0)	10 (13.0)	6 (6.7)	21 (15.0)	40 (10.5)
전 체	24 (100.0)	50 (100.0)	77 (100.0)	90 (100.0)	140 (100.0)	381 (100.0)



(그림4-5) 읍면농악경연대회 추진 방안(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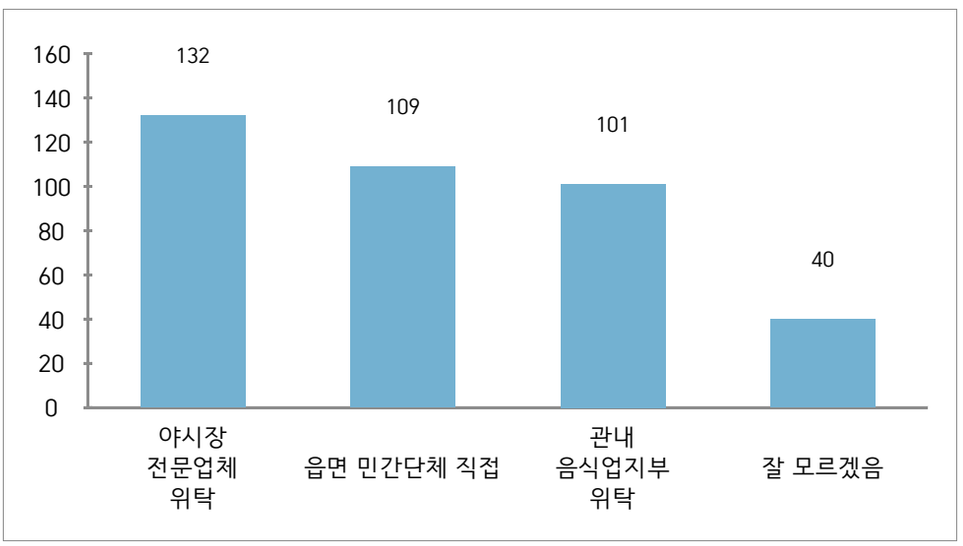
□ 먹거리 장터 운영 방안

❍ 소가야문화제 행사기간 중 먹거리 장터 운영 방안으로 '야시장 전문업체 위탁'이 132명(34.6%), '읍면 민간단체 직접'이 109명(28.5%), '관내 음식업지부 위탁'이 101명(26.4%)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가장 높게 나타난 먹거리 장터 운영 방안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야시장 전문업체 위탁', 40대는 '관내 음식업지부 위탁', 50대는 '야시장 전문업체 위탁'과 읍면 민간단체 직접', 60대 이상은 '읍면 민간단체 직접'으로 나타남

(표4-10) 먹거리 장터 운영 방안(단위: 명, %)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 체
야시장 전문업체 위탁	12 (50.0)	20 (39.2)	23 (29.9)	30 (33.3)	47 (33.6)	132 (34.6)
읍면 민간단체 직접	4 (16.7)	7 (13.7)	17 (22.1)	30 (33.3)	51 (36.4)	109 (28.5)
관내 음식업지부 위탁	6 (25.0)	16 (31.4)	25 (32.5)	26 (28.9)	28 (20.0)	101 (26.4)
잘 모르겠음	2 (8.3)	8 (15.7)	12 (15.6)	4 (4.4)	14 (10.0)	40 (10.5)
전 체	24 (100.0)	51 (100.0)	77 (100.0)	90 (100.0)	140 (100.0)	382 (100.0)



(그림4-6) 먹거리 장터 운영 방안(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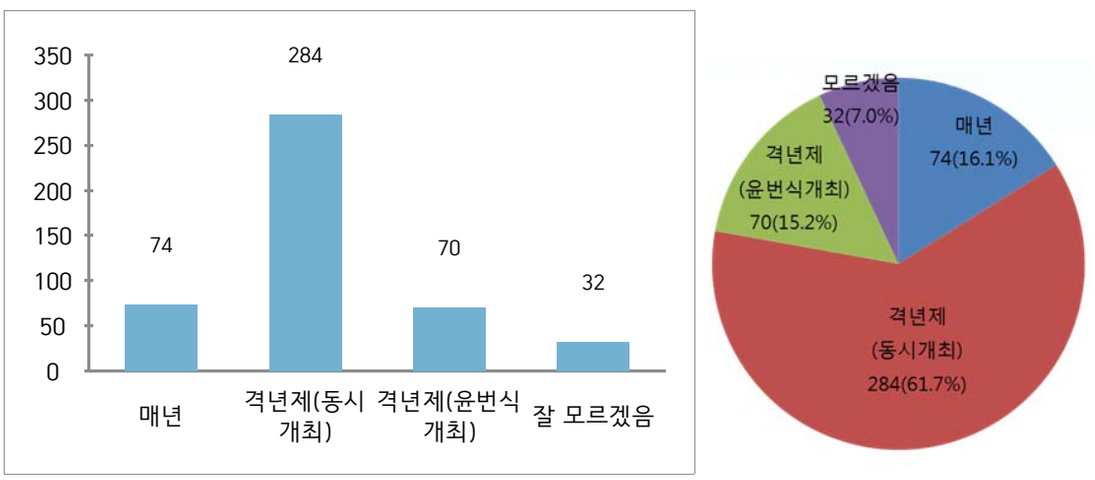
(2) 소가야문화제 운영부분

□ 소가야문화제 개최 주기

❍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소가야문화제 개최 주기로 '격년제(군민체육대회와 동시 개최)'가 284명(61.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4-11) 소가야문화제 개최 주기(단위: 명, %)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 체
매년	7 (14.6)	7 (11.7)	12 (14.0)	20 (18.9)	28 (17.5)	74 (16.1)
격년제 (동시 개최)	23 (47.9)	42 (70.0)	57 (66.3)	65 (61.3)	97 (60.6)	284 (61.7)
격년제 (윤번식 개최)	9 (18.8)	7 (11.7)	14 (16.3)	15 (14.2)	25 (15.6)	70 (15.2)
잘 모르겠음	9 (18.8)	4 (6.7)	3 (3.5)	6 (5.7)	10 (6.3)	32 (7.0)
전 체	48 (100.0)	60 (100.0)	86 (100.0)	106 (100.0)	160 (100.0)	46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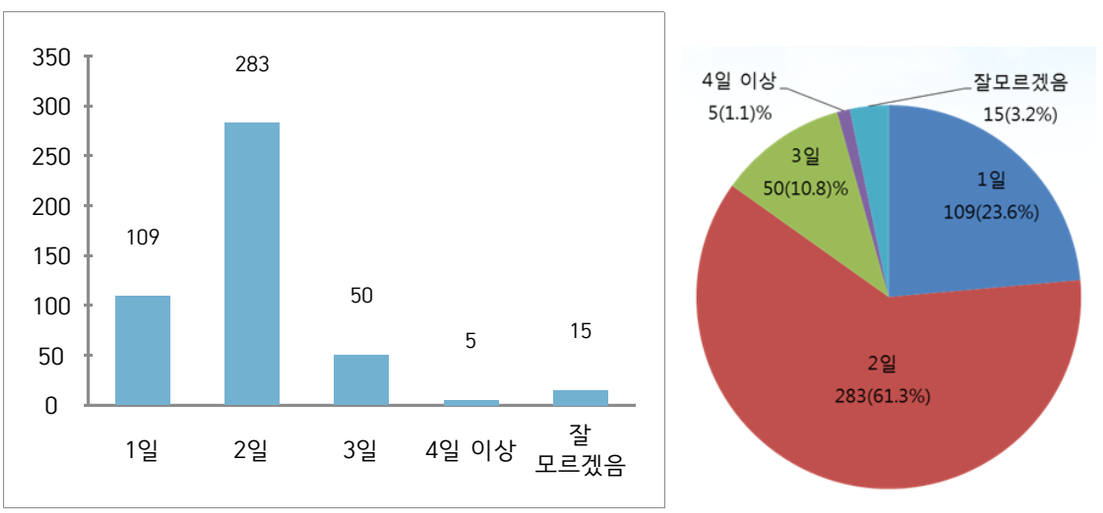
(그림4-7) 소가야문화제 개최 주기(단위: 명)

□ 소가야문화제 행사 기간

❍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소가야문화제 행사 기간으로 '2일'이 283명(61.3%)으로 나타남

(표4-12) 소가야문화제 행사 기간(단위: 명, %)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 체
1일	12 (25.0)	16 (26.7)	20 (23.3)	26 (24.1)	35 (21.9)	109 (23.6)
2일	27 (56.3)	39 (65.0)	51 (59.3)	65 (60.2)	101 (63.1)	283 (61.3)
3일	5 (10.4)	3 (5.0)	12 (14.0)	12 (11.1)	18 (11.3)	50 (10.8)
4일 이상	1 (2.1)	-	2 (2.3)	2 (1.9)	-	5 (1.1)
잘 모르겠음	3 (6.3)	2 (3.3)	1 (1.2)	3 (2.8)	6 (3.8)	15 (3.2)
전 체	48 (100.0)	60 (100.0)	86 (100.0)	108 (100.0)	160 (100.0)	46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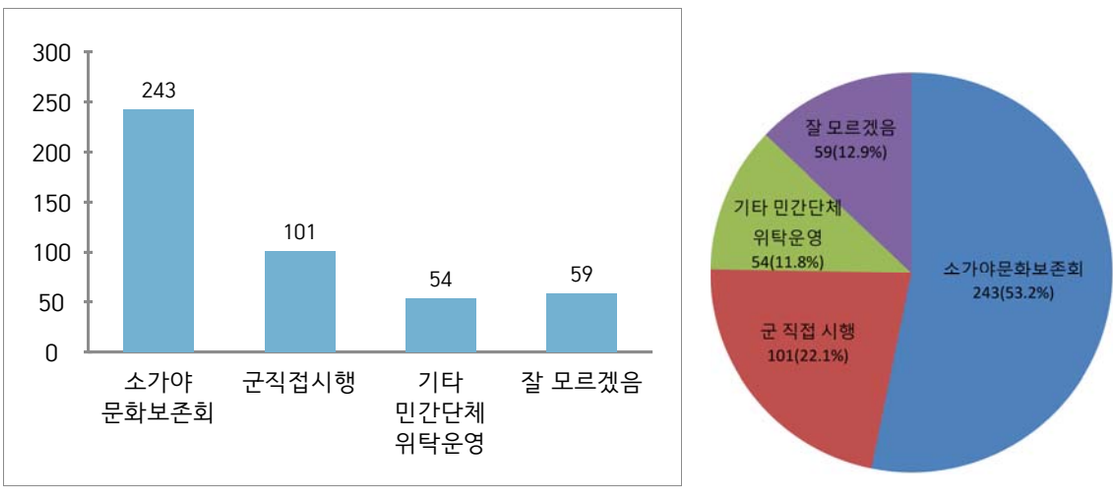
(그림4-8) 소가야문화제 행사 기간(단위: 명)

□ 소가야문화제 행사 주관

❍ 소가야문화제 행사 주관은 어디에서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소가야문화보존회(현행대로)'가 243명(53.2%)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군 직접 시행'이 101명(22.1%)으로 나타남

(표4-13) 소가야문화제 행사 주관(단위: 명, %)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 체
소가야 문화보존회	25 (52.1)	27 (45.8)	47 (55.3)	61 (56.5)	83 (52.9)	243 (53.2)
군 직접 시행	7 (14.6)	11 (18.6)	20 (23.5)	24 (22.2)	39 (24.8)	101 (22.1)
기타 민간단체 위탁운영	8 (16.7)	14 (23.7)	10 (11.8)	11 (10.2)	11 (7.0)	54 (11.8)
잘 모르겠음	8 (16.7)	7 (11.9)	8 (9.4)	12 (11.1)	24 (15.3)	59 (12.9)
전 체	48 (100.0)	59 (100.0)	85 (100.0)	108 (100.0)	157 (100.0)	45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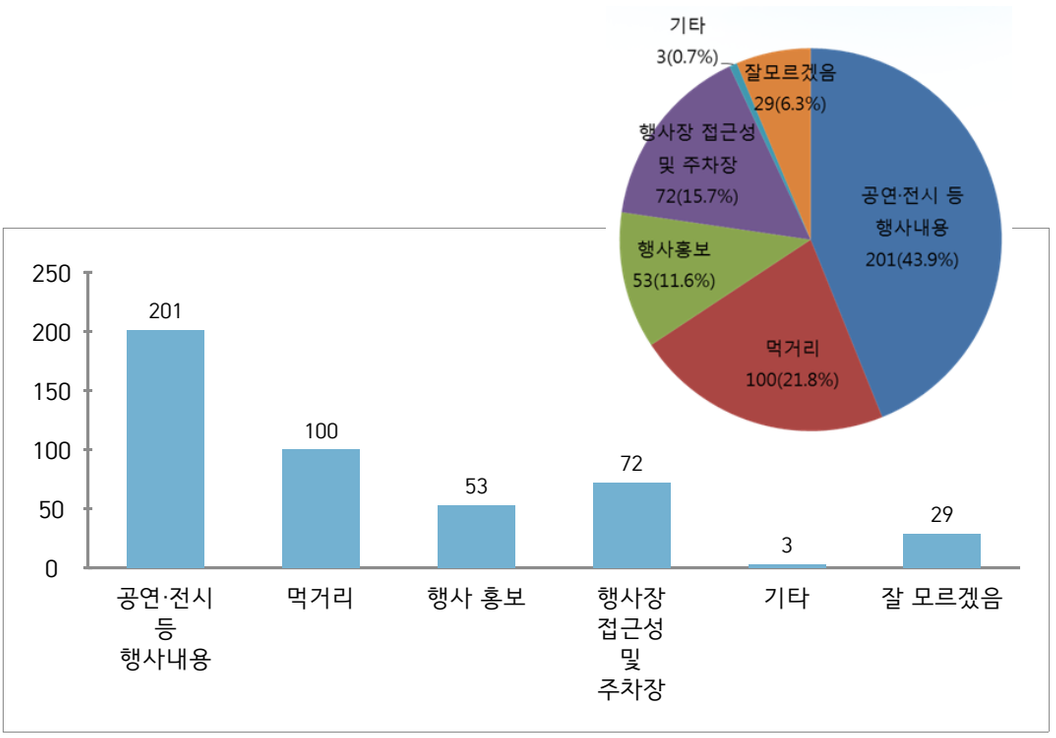
(그림4-9) 소가야문화제 행사 주관(단위: 명)

□ 소가야문화제 개선사항

❍ 소가야문화제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공연·전시 등 행사내용'이 201명(43.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먹거리', '행사장 접근성 및 주차장' 순으로 나타남

(표4-14) 소가야문화제 개선사항(단위: 명, %)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 체
공연·전시 등 행사내용	21 (45.7)	36 (60.0)	31 (36.0)	40 (37.0)	73 (46.2)	201 (43.9)
먹거리	11 (23.9)	13 (21.7)	20 (23.3)	24 (22.2)	32 (20.3)	100 (21.8)
행사 홍보	7 (15.2)	4 (6.7)	17 (19.8)	14 (13.0)	11 (7.0)	53 (11.6)
행사장 접근성 및 주차장	3 (6.5)	5 (8.3)	15 (17.4)	22 (20.4)	27 (17.1)	72 (15.7)
기타	-	-	-	1 (0.9)	2 (1.3)	3 (0.7)
잘 모르겠음	4 (8.7)	2 (3.3)	3 (3.5)	7 (6.5)	13 (8.2)	29 (6.3)
전 체	46 (100.0)	60 (100.0)	86 (100.0)	108 (100.0)	158 (100.0)	458 (100.0)



(그림4-10) 소가야문화제 개선사항(단위: 명)

(3) 소가야문화제 군민 인식도

□ 소가야문화제 군민 인식도

① 고성군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다.

❍ 고성군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음' 1점부터 '매우 그러함' 5점까지로 평가한 결과, 평균 3.18점으로 나타남

(표4-15) 고성군 이미지 제고 기여도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 체
평균±표준편차	3.13±0.841	3.10±0.712	3.14±0.883	3.24±0.787	3.20±0.846	3.18±0.821

② 군민의 화합과 일체감 조성에 기여한다.

❍ 군민의 화합과 일체감 조성에 기여한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음' 1점부터 '매우 그러함' 5점까지로 평가한 결과, 평균 3.23점으로 나타남

(표4-16) 군민화합과 일체감 조성 기여도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 체
평균±표준편차	3.10±0.805	3.19±0.798	3.16±0.879	3.30±0.808	3.28±0.839	3.23±0.830

③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음' 1점부터 '매우 그러함' 5점까지로 평가한 결과, 평균 3.07점으로 나타남

(표4-17)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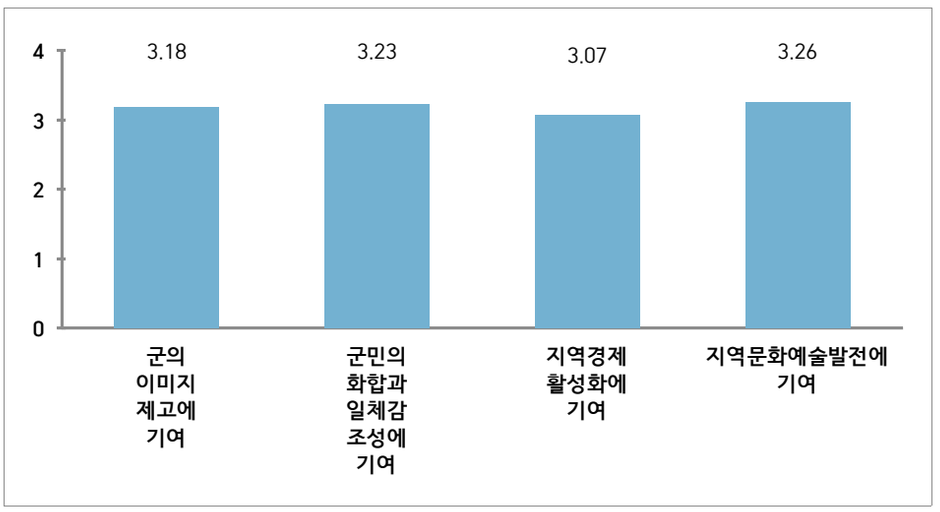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 체
평균±표준편차	3.13±0.733	2.93±0.868	3.09±0.908	3.14±0.878	3.05±0.872	3.07±0.865

④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다.(전시, 공연, 문화활동 등)

❍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음' 1점부터 '매우 그러함' 5점까지로 평가한 결과, 평균 3.26점으로 나타남

(표4-18) 지역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 체
평균±표준편차	3.25±0.812	3.08±0.857	3.20±0.865	3.33±0.873	3.30±0.789	3.26±0.836



(그림4-11) 소가야문화제 군민인식도

□ 기타 의견

❍ '적극적 행사 홍보', '충분한 예산지원으로 품위있는 소가야문화제가 되도록 당부드림.', '행사를 알차게 했으면', '농사철이 아닌 계절에 했으면', '소가야를 알릴 수 있는 놀이 및 전통공연 발굴',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면서 아이들이 놀 때 어른들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을 겸하면 좋을 것 같다.', '행사장소가 흩어져 있어 전시회 등 참관애로가 있으므로 행사장소를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모으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프로그램 수 너무 많음. 실속있게 몇 가지만 추진 요망', '공연, 체험, 전시 프로그램이 늘어났으면', '소가야문화제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등의 기타의견이 있음

제5장

소가야문화제 재정립 및 발전방안

제5장 소가야문화제 재정립 및 발전방안

1.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기본방향

❍ 지역 주민화합과 정체성 확립의 장

❍ 고성군의 지역 이미지 제고 및 홍보의 장

❍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의 장

2) 추진전략

❍ 지역민의 자발적·적극적 참여 유도를 통한 축제의 지속가능성 확보

❍ 특화 콘텐츠를 통한 소가야문화제의 주제성 및 고유성 강화

❍ 지역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축제 파급효과 극대화

❍ 축제 운영의 전문화 및 효율성 강화

❍ 축제의 홍보 및 마케팅 강화를 통한 축제의 경쟁력 강화

❍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 강화를 통한 특화콘텐츠 발굴

2. 소가야문화제 재정립 및 발전방안

1) 소가야문화제 행사 운영 개선 · 발전방안

(1) 운영조직 및 예산규모

❍ 축제의 운영조직은 현재 소가야문화보존회에서 주관하고 있어 그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이에 주관단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축제 기획 및 운영에서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주민화합형 축제한마당

기본방향

- 지역 주민화합과 정체성 확립의 장
- 고성군의 지역 이미지 제고 및 홍보의 장
-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 및 지역 문화 발전의 장

추진전략

- 지역민의 자발적·적극적 참여 유도를 통한 축제의 지속가능성 확보
- 특화 콘텐츠를 통한 소가야문화제의 주제성 및 고유성 강화
- 지역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축제 파급효과 극대화
- 축제 운영의 전문화 및 효율성 강화
- 축제의 홍보 및 마케팅 강화를 통한 축제의 경쟁력 강화
-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 강화를 통한 특화콘텐츠 발굴

(그림5-1) 소가야문화제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도

(표5-1) 경남시군 축제행사 주관단체 현황

시군명	행사명	주관	비고
창원시	마산 만날제	만날제운영위원회	
창원시	야철제	창원문화원	
창원시	진해군항제	진해군항제축제추진위원회	
창원시	진해예술제	한국예총 진해지회	
창원시	창원예술제	한국예총 창원지회	
진주시	개천예술제	개천예술제 제전위원회	조례 명시
진주시	진주논개제	진주논개제 제전위원회	
통영시	통영한산대첩축제	한산대첩기념사업회	조례 명시
사천시	와룡문화제	사천문화재단	조례 명시
김해시	가야문화축제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조례 명시
김해시	김해예술제	한국예총 김해지회	
밀양시	밀양아리랑제	밀양문화제집전위원회	조례 명시
거제시	옥포대첩기념제전	옥포대첩기념제전위원회	
의령군	의병제전	의령기념사업회	
함안군	함안 아라문화제	아라제위원회	
창녕군	비사벌문화제	비사벌문화예술제전위원회	
고성군	소가야문화제	소가야문화보존회	
하동군	토지문학제	토지문학제 운영위원회	조례 명시
산청군	남명선비문화축제	남명선비문화축제집행위원회	
산청군	지리산평화제	지리산평화제 추진위원회	
거창군	거창한마당축제	아림예술제위원회	조례 명시
합천군	대야문화제	대야문화제제전위원회	

❍ 표5-1과 같이 경남시군의 축제행사의 경우, 일부는 지역 문화예술단체, 문화재단, 또는 지역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많은 축제의 경우 시군 지자체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주관단체 현행유지가 조금 많으나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도 과반정도 가까이 많음. 따라서 현행 주관단체의 유지의 경우, 축제기획 전문성과 조직운영의 투명성 등이 강화되어야 함. 다만, 현행주관단체의 변경은 군의 여러 사정과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가 많이 중요함

❍ 고성군 소가야문화제의 경우, 현재의 주관단체와 함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이 고성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방안, 관련 축제위원회를 조직하고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이 있음. 이들 대안에 대한 장단점을 간단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음. 고성문화원이 주관하는 경우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상호 비교분석에서 생략함

(표5-2) 주관단체 대안별 장단점 분석

구분	대안1. 소가야문화보존회(현행)	대안2. 군 직접 시행
장점	·축제조직·운영의 안정성	·축제 운영 및 인건비 절약 ·군 직영에 따른 효율성 및 상황변화에 신축적 대응 가능 ·축제위원회를 통한 전문성 확보
단점	·축제기획의 전문성 부족 ·운영 및 인건비 지원 필요	·고성군 업무 가중

❍ 이와 같이 현재의 주관단체를 고성군 직영으로 대체시 고성군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단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긍정적인 분석이 가능함. 다만 군에서의 직접 시행의 경우 군의 축제 발전에 대한 적극적 의지와 함께 다양한 축제분야 전문가의 충분한 활용과 축제기획을 위한 충분한 전문가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축제 주관단체의 긍정적인 대체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향후 만일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지역 인사와 함께 축제 기획전문가의 참여와 역할분담은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임

❍ 소가야문화제의 주관을 군직영으로 할 경우, (사)소가야문화보존회는 법인 해산 또는 소가야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 개최 외에 정관상의 고유목적 사업으로 되어 있는 지역향토사 재조명 및 지역문화 계승 사업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소가야문화보존회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본 법인은 조상의 숨결이 깃들고 향토의 얼이 서린 우리 고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고성인들의 뜻을 모아 향토의 전통문화를 발굴조명하고 소가야문화제를 보존 전승하여 매년 군민의 축제를 열어 화합의 광장이 되게 하는 동시 문화진흥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만, 이 경우 고성문화원의 고유 업무와의 분장이 모호하여 두 단체간의 업무 중복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현재 고성문화원의 고유 업무는 다음과 같음[15)]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 이에 두 기관 단체간의 업무조율 내지는 통합 운영을 적극 검토해야 함

❍ 이상에서 주관단체의 현상유지나 변경에 대해 여러 상황을 검토하였음. 이를 통해 볼 때 현실적으로는 현행 주관단체의 유지를 전제로 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 즉 전문성 및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재 주관단체의 조직 안에 주관단체, 군관계자, 고성예총 및 문화원 등 지역 관련단체, 외부 축제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소가야문화제 축제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의 전문기획력 부족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관단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함이 필요함

❍ 또한, 향후 소가야문화보존회는 그 설립 목적에 부합토록 소가야문화제의 주관에만 업무와 역할이 국한되지 않고 지역 향토사 연구와 지역문화진흥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 강화가 필요함. 즉, 소가야사 조사·연구사업 발굴(가야사 연구·복원과 연계한 사업 등) 등과 같은 법인의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 전통문화 계승 및 발굴·보존사업 등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외부전문가(교수, 향토사학자 등) 영입으로 법인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변화하는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조사·연구 사업을 실시해야 함. 조속히 법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소가야문화보존회의 역할과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함

15) 고성군, 『고성군지 3권』, 2015의 175쪽에서 인용함.

❍ 소가야문화제 축제 예산의 경우, 현재의 고성군의 재정상황과 지역경제의 침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현재 예산수준에서 많은 증액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다만, 축제행사 콘텐츠에 따라서 신축적인 예산 증감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인 예산 운영 기조를 유지해야 함

❍ 축제 예산과 행사콘텐츠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 특히 중요한 킬러콘텐츠를 새롭게 보강할시 축제 예산은 크게 증가가 예상됨. 따라서 축제콘텐츠 개발 운영시 군의 예산 지원문제와 연동하여 계획함이 현실적으로 필요함

(2) 축제행사 기간 및 축제공간

❍ 축제행사 기간은 설문조사 결과 2일이 가장 많이 응답함. 이를 볼 때 축제기간은 이틀을 기준으로 하여 2~3일이 적정한 축제기간이라 할 수 있음

❍ 축제공간은 기본적으로 현행 공간의 계속적 사용이 필요함. 참고로 2016년의 경우, 고성송학동고분군, 고성군 국민체육센터, 고성군종합운동장, 고성문화원, 고성박물관 등지에서 각기 개최됨

❍ 지난 축제의 경우, 고성군의 시설 현황과 축제 프로그램에 의해 여러 장소에서 분산되어 개최되었음. 이는 고성군에 문화예술회관 등 중심 문화시설이 부재하여 공연프로그램이나 기타 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하기 불편함에 크게 기인함

❍ 축제공간의 문제는 다양한 곳에서 분산 개최하여 방문객에게 고성군 전역을 홍보하는 효과도 일부 있으나, 반면 축제 방문객에게 축제장소의 과도한 분산은 축제 운영과 방문객 접근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축제장소의 집적화도 필요하다고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음

❍ 현재 상황을 염두에 두어 기존 축제장소의 합리적 조정 즉, 고성군종합운동장과 고성박물관을 중심으로 행사장을 일부 집적화함과 함께 송학동고분군의 축제기간 중 사용 확대를 고려해야 함

❍ 소가야문화제의 의미와 상징성, 장소성 등을 고려 할 때 송학동고분군의 축제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가야문화 관련 체험행사 등의 진행 장소로 적극 고려해야 함. 이외에도 지역 문화예술동호회의 공연·전시 마당이나 기타 축제행사의 공간으로 적절히 사용토록 함

❍ 한편, 현재 축제의 주무대가 고성군 스포츠 파크 일대로 고성읍 중심과는 거리적 단절감이 있어 축제의 분위기 조성에 일부 문제가 제기되기도 함. 축제의 분위기 조성과 송학동고분군과의 동선 연결을 위해 고성읍내와 연결되는 송학천을 부대 행사장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송학천변 농로가 넓지 않아 대형 부스나 구조물의 설치가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송학천변도로에 소규모의 간이 전시나 축제 행사 조형물 설치, 청사초롱·소원등 달기, 간이 먹거리 장터 설치 등을 통해 축제장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방문객이 걷기 좋은 환경을 연출토록 함

❍ 주변의 농경지를 활용하여 꽃길 조성과 가을철 추수체험, 주민 창작 허수아비 제작 및 전시 등 고성의 농경 민속과 관련되는 체험의 장으로 활용토록 함

❍ 다만, 이러한 축제공간의 논의는 행사프로그램 내용과 직접 연동되어 있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행사프로그램에 따라 변동이 필요함. 또한, 축제 행사홍보물 제작시에는 행사장 안내도도 제작·개선하여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함

(그림5-2) 소가야문화제 행사장

(3) 소가야문화제 개최 주기

❍ 소가야문화제의 행사 개최 주기에 대한 군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객년제 개최 및 체육대회와 동시 개최를 응답한 경우가 다수임

❍ 소가야문화제 개최주기를 현행 매년개최와 격년제 개최(군민체육대회와 동시 개최)를 방안별로 장단점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5-3) 소가야문화제 개최주기 비교

구분	현행(매년)	격년제
장점	·행사 연례화에 따른 향유 기회 증대 ·주민화합의 기회 증대	·참여율 증대 기대 ·축제 준비 부담 감소 ·축제 예산 절감 ·축제 콘텐츠 개발·구성에 내실 가능
단점	·축제 준비 인력 및 참여인력 부담 가중 ·축제 예산 부담 가중 ·축제 준비 기간 가중 ·축제 콘텐츠 개발·구성 압력 가중	·축제 향유기회 감소 ·주민 화합의 기회 감소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전시·공연활동 기회 감소

❍ 이처럼 소가야문화제 개최 주기별 장단점 분석과 함께, 설문조사 결과, 향후 지역 인구변화, 그리고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향후 소가야문화제는 격년제로 하여 군민체육대회와 같이 개최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소가야문화제와 체육대회의 동시 개최시 군민체육대회에 관심 집중에 따른 소가야문화제의 축제 집중도 저하의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으므로 행사 추진시 적극적인 축제 홍보와 함께 균형 있는 행사진행이 되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축제를 격년제로 실시 시, 매년 축제시 개최해 온 지역문화예술 단체의 전시·공연 발표행사 기회가 줄어들어 지역 문화예술의 전시·공연 활동이 일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새로운 전시공연 활동 기회를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축제 격년제 개최에 따르는 전시·공연 발표 기회 감소 문제를 해결함이 타당함. 이를 위해 군에서는 소가야문화제 미 개최 년도에도 매년 문화예술 단위행사를 개최(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함

(4) 먹거리 장터(야시장) 운영 개선방안

❍ 현재 군민체육대회 및 소가야문화제행사 기간 중 방문객을 위해 먹거리 장터(야시장)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임

❍ 먹거리 장터(야시장)의 외부업체 위탁운영에 따라 지역민에게 축제의 경제적 혜택이 없어 관내 식당 및 일부에서 운영방법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먹거리 장터(야시장) 개선방안으로 군민체육대회 및 소가야문화제 행사기간 중 먹거리 장터(식당)운영을 희망하는 관내 식당 및 읍면 등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고토록 함

2) 소가야문화제 행사 내용 개선 · 발전방안

❍ 지역의 축제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내재된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는 행사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하여 운영해야 함. 즉 역사성과 전통성이 축제에 담겨져야 함. 이를 위해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축제에 접목시켜 지역민 및 관람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며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스토리텔링하여 킬러 콘텐츠화 하여야 함

❍ 현행 소가야문화제의 행사 콘텐츠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성군의 역사자원의 활용을 통한 축제 프로그램 기획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축제의 콘텐츠 다양성을 확보해야 함

❍ 참고로 현재 고성군의 지정문화재는 총 73건이며, 삼국시대 소가야 문화재로는 송학동고분군과 내산리고분군이 있음. 그 외 국가무형문화재인 고성오광대와 고성농요 등 축제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문화유산자원이 고성군내에 산재함

❍ 이러한 지역 특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가야문화제 행사에 포함시켜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축제 볼거리를 제공해야함

(표5-4) 고성군의 지정문화재

연번	종목	명칭	소재지	지정일	시대
1	보물 제495호	고성 옥천사 청동북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1로 471-9	1968.12.19	고려
2	보물 제1317호	운흥사괘불탱 및 궤	고성군 하이면 와룡2길 248-28	2001.08.03	조선
3	보물 제1693호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1로 471-9	2010.12.21	조선
4	보물 제1694호	고성 운흥사 관음보살도	고성군 하이면 와룡2길 248-28	2010.12.21	조선
5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3-5번지	1963.01.21	삼국
6	사적 제120호	고성 내산리 고분군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188-10번지	1963.01.21	삼국
7	천연기념물 제411호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 산지	고성군 하이면 덕명5길 65	1999.09.14	-
8	천연기념물 제475호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2006.12.05	-
9	국가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	고성군	1964.12.24	-
10	국가무형문화재 제84-1호	고성농요	고성군	1985.12.01	-
11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3호	옥천사자방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1972.02.12	조선
12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9호	옥천사향로	고성군 연화산1로 471-9	1972.02.12	-
13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60호	옥천사동종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1로 471-9	1972.02.12	-
14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82호	운흥사대웅전	고성군 하이면 와룡2길 248-28	1974.02.16	-
15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95호	정씨동생화회문기	고성군 송학로113번길 50	1979.05.02	-
16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21호	양화리석조여래좌상	고성군 양화1길 102-15	1974.12.28	-
17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22호	교사리석조삼존불상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1235번지	1974.12.28	-
18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32호	옥천사대웅전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1로 471-9	1974.12.28	신라
19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84호	운흥사불경목판	고성군 하이면 와룡2길 248-28	1979.12.29	-
20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19호	고성향교		1983.08.12	-
21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99호	고성옥천사소장품		1994.07.04	조선
22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56호	고성운흥사감로탱		2000.08.31	-
23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57호	고성운흥사아미타후불탱		2000.08.31	-
24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58호	고성운흥사약사후불탱		2000.08.31	-

연번	종목	명칭	소재지	지정일	시대
25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43호	고성송산리승총명록	고성군 송학로113번길 50	2006.04.06	-
26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75호	고성보광사목조대세지보살좌상		2008.10.30	백제
27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11호	고성 장의사 석조관음반가상		2011.04.28	백제
28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38호	고성 운흥사 목조삼세불좌상	고성군 하이면 와룡2길 248-28	2013.05.02	-
29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45호	고성 이방 박영장 불망비	고성군 송학로135번길 78-1	2014.01.02	-
30	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	동외동패총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27	1974.12.28	-
31	경상남도 기념물 제36호	오방리지석묘	고성군 하일면 오방리 산45외 2	1977.12.28	청동기
32	경상남도 기념물 제37호	학림리지석묘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571-7 외 7	1977.12.28	청동기
33	경상남도 기념물 제38호	석지리지석묘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269	1977.12.28	청동기
34	경상남도 기념물 제82호	고성북평리찰피나무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산 57-1	1986.08.06	-
35	경상남도 기념물 제86호	고성장산숲	고성군 마암면 장산리 231-2	1987.05.19	-
36	경상남도 기념물 제138호	고성좌이산봉수대	고성군 하일면 양화리 산52-1번지, 방기리 138-1	1994.07.04	조선
37	경상남도 기념물 제139호	고성소을비포진성	고성군 하일면 동화리 398-4 일원	1994.07.04	조선
38	경상남도 기념물 제140호	고성옥천사일원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산50-1번지 외	1994.07.04	-
39	경상남도 기념물 제221호	고성천왕점봉수대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산1번지	1999.08.06	-
40	경상남도 기념물 제236호	곡산봉수대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산52-2번지 장기리 산130-1	2001.09.27	조선
41	경상남도 기념물 제271호	고성 허원필 묘	-	2010.02.04	-
42	경상남도 민속문화재 제1호	석마리석마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 608	1974.02.16	-
43	경상남도 민속문화재 제16호	고성봉동리배씨고가	고성군 회화면 봉동1길 67-42	1994.07.04	-
44	경상남도 민속문화재 제22호	고성 학림리 최씨종가	-	2011.07.14	조선
45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4호	수림서원	고성군 마암면 화산리	1983.07.20	-
46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5호	도산서원	고성군 구만면 화림리 127	1983.07.20	-
47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6호	갈천서원	고성군 대가면 갈천리	1983.07.20	-
48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7호	도연서원	고성군 마암면 도전리	1983.08.06	-

연번	종목	명칭	소재지	지정일	시대
49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8호	위계서원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	1983.07.20	-
50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9호	호암사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1983.07.20	-
51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89호	고성읍성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일대	1983.12.20	-
52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90호	거류산성	고성군 거류면 거산리	1983.12.20	-
53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91호	철마산성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1983.12.20	-
54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15호	고성장산리허씨고가	고성군 마암면 장산리 184	1985.01.23	-
55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46호	옥천사명부전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1로 471-9	1985.11.14	조선
56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47호	운흥사영산전	고성군 하이면 와룡2길 248-28	1985.11.14	조선
57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60호	소천정	고성군 구만면 효락리	1986.08.06	조선
58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62호	고성송계리이씨고가	고성군 대가면 송계리	1986.08.06	-
59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78호	고성 최필간고택	고성군 하일면 금단길 150-7	1990.12.20	-
60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07호	고성양화리법천사지부도군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280, 281, 274	1994.07.04	-
61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08호	육영재	고성군 하일면 금단길 150-7	1994.07.04	조선
62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19호	행촌도촌선생유허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84번길 35-7	1995.05.02	-
63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88호	고성운흥사명부전목조각상	고성군 하이면 와룡2길 248-28	2000.08.31	-
64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89호	고성운흥사목제원패	고성군 하이면 와룡2길 248-28	2000.08.31	조선
65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92호	고성청광리박진사고가	고성군 개천면 청광6길 41	2001.02.22	-
66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93호	소산정사	고성군 대가면 송계리 806번지	2001.02.22	조선
67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73호	철산정사	동해면 구절로 462-1	2005.07.21	-
68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447호	고성효락리쌍충록책판	-	2008.05.22	조선
69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35호	고성 청광리 창효각	-	2011.07.14	조선
70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69호	고성 청광리 김만증 간찰 및 분재기	-	2013.10.24	-
71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78호	고성 옥천사 연대암 아미타불회도	-	2014.01.23	-
72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626호	고성 옥천사 청련암 아미타불회도	고성군 연화산1로 471-9	2016.06.02	-
73	등록문화재 제258호	고성 학동마을 옛 담장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917-1번지 등	2006.06.19	조선

❍ 기존 소가야문화제 행사의 또 다른 문제점은 주민들이나 방문객의 직접적인 현장 참여를 유도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축제 참여프로그램이 부족함. 기존의 행사는 전문 공연이나 주민 경연대회 형식의 행사가 많음. 이를 보완하여 축제를 참여형 축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소가야문화제 행사로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일부 행사의 경우, 역사적 고증 문제나 내용의 구성, 운영상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어 운영방안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한 상황임

❍ 소가야문화제의 행사프로그램은 행사 개최년도 별로 지속적인 개선과 변경이 필요함. 매회 축제의 주제설정과 관련 콘텐츠 개발 보완이 지속되어야 축제 방문객에게 새로운 재미를 제공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현재의 축제행사는 매회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이는 지역문화예술 단체의 발표와 공연의 기회 제공, 행사의 역사성과 상징성, 현실적인 주민들의 요구 등의 차원에서 일부 이해가되나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축제의 콘텐츠 변화가 필요함

❍ 소가야문화제의 행사프로그램의 보완을 위해 새로운 콘텐츠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다만 기존의 행사프로그램은 그간의 축제 역사와 지역의 축제 참여 관련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적절한 조정이 필요함

(1) 주제프로그램 강화-소가야 및 고성 민속의 킬러 콘텐츠화

가. 소가야 역사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하는 소가야유적지 탐방**

❍ 소가야유적 중 특히, 고분은 다양하고 많은 유물이 부장되어 있어 지역에 따른 유물의 특징과 가야세력의 확장과 변천 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체계화 할 수 있는 좋은 역사자료임

❍ 이에 소가야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인 고분유적을 연계 활용하여 축제행사 기간 중에 소가야문화를 방문객에게 알리고 체험하게 하는 행사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함. 축제행사장과 소가야연맹체의 최고지배자 무덤으로 추정되는 송학동고분군

(사적 제119호), 인근에 위치한 고성박물관, 내산리고분군(사적 제120호)까지 연결하는 소가야 유적 탐방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축제행사 기간 중 실시함

❍ 1일 4회, 1회당 참여인원 40명 정도로 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동반한 버스투어로 진행함

❍ 이 행사는 특히, 소가야만이 가지는 독특한 묘제인 분구묘(墳丘墓)와 고대인들의 매장풍습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를 방문객과 참여객에게 제공할 수 있음

참고: 소가야 묘제의 특징-분구묘

분구묘(墳丘墓)란 지하에 매장주체부를 설치하지 않고 분구를 먼저 설치한 후 그 속에 매장주체부를 배치하는 매장방식으로 조영된 고분을 칭함. 분구묘는 중국 요동지역의 성토적석묘(盛土積石墓)나 장강하류지역의 토돈묘(土敦墓)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호남 서부지역과 충남 서부지역의 주구묘(周構墓)에서 발전하여 3세기경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6세기 전반까지 영산강유역과 전라남도 서부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분구묘는 그 지역적 분포로 인해 마한지역의 고유 묘제로 4세기 근초고왕의 백제의 정복 이후에도 이 지역에 마한의 세력이 유지되었음을 보이는 증거로 여겨짐. 이러한 분구묘가 곡성·순천·구례 등 전남 동부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점에 반해 고성에서 삼국시대 주 묘제로서 확인되고 있음.[16]

5~6세기대 영남지방에서 확인된 분구묘는 현재로선 고성지역이 유일하며 주로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중엽의 한정된 시기에 축조됨. 고성지역 분구묘는 최초 조성된 주곽을 중심으로 1~3기의 석곽을 나란히 배치하며 분구의 가장자리에 호상(弧狀)으로 석곽을 설치하거나 주곽의 단벽쪽 외곽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석곽을 배치하는 것이 특징임.

고성지역 분구묘는 송학동 최고수장층에 의해 영산강 집단으로부터 도입한 묘제이며, 고성 송학동, 율대리, 내산리 등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축조가 이루어짐.[17]

□ 고성박물관의 소가야 특별·기획전시 시행

❍ 고성박물관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한곳에서 경험·학습할 수 있는 거점 문화시설임. 고성박물관은 지역사회에서 역사학습의 공간이자 여가활용의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축제의 주요행사장으로도 사용됨

❍ 축제기간에 맞추어 이 고성박물관을 이용하여 소가야 관련 유물의 특별·기획전시를 마련함. 이를 통해 고성군민 및 외부 방문객에게 고성의 역사문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홍보·교육함도 축제행사로 큰 중요성이 있음

16) 조신규, 「삼국시대 고성지역 분구묘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2014의 1쪽.
17) 하승철, 『경남의 가야고분과 동아시아』 「4-6세기 고성지역 고분문화의 이해」, 2010의 115-118쪽.

□ 소가야 학술대회 등 전국단위 학술행사 개최

❍ 삼국시기 가야는 기록의 부재 등으로 인해 문헌자료가 부족한 실정으로 특히, 소가야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인 문헌기록과 발굴조사를 통해 조명되고 정립되어 옴. 현재 소가야에 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가야문화에 대한 학술적 조명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음

❍ 축제행사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상호 의견을 개진하는 전국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소가야에 대한 이해와 학술적 발전을 기하는 기회를 가짐도 의미 있음

□ 소가야 토기만들기 경연대회

❍ 소가야 유물 중 다른 가야지역과 차별성이 있는 것이 소가야 토기임. 이 소가야 토기를 활용한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여 소가야문화제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냄

❍ 유사한 예로, 부여의 백제문화제에서는 '백제토기 경연대회'을 진행함. 단체전과 일반부로 나누어 진행하고 대학생의 경우 도자기 전공학과 출신들이 경연에 참가하기도 하고, 일반부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일반 주부들이 참여하기도 함

❍ 소가야 축제에서의 토기만들기 행사는 가족단위의 참가를 유도하여 어린이들과 부모가 함께하는 체험으로 가족의 결속을 다지고 토기의 제작과정과 지역의 토기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함. 토기는 제작과 건조, 소성과정을 거친 후 각 가정으로 배송하여 소장할 수 있도록 함

(그림5-3) 백제문화제 백제토기 경연대회 사례

자료: 사비성지기 블로그 (http://blog.daum.net/bakje123)에서 인용함

참고: 소가야 토기의 특징

소가야 토기는 진주, 고성, 사천을 비롯한 서부경남지역에 5세기 2/4분기부터 6세기 1/4분기까지 분포하는 특징적인 토기양식으로 대가야토기, 아라가야토기와 함께 후기가야토기의 3대 지역양상을 이룸.[18)]

소가야 토기를 구성하는 기종의 조합 양상은 일단장방형투창고배와 개, 유개식 및 무개식 삼각투창고배, 발형기대와 수평구연호, 통형기대와 단경호, 광구장경호, 컵형토기, 개배가 주를 이룸. 이러한 양상은 주변지역의 토기문화와는 뚜렷이 구분됨.

소가야토기 주요 기종의 형태적 특징을 보면, 일단장방형투창 고배는 구연부가 내경 후 반전상을 이루면서 구연단부 내연에 홈이 만들어지고 대각은 투창하방에서 강한 돌대가 1조 돌려지면서 골절상을 이루고 있음. 이단투창고배가 주종을 이루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일단투창고배가 고배의 주를 이루는 것이 특징적임. 유개식 삼각투창고배는 일단장방형투창고배와 배부의 형태에서 통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대각에서는 하방의 골절상이 보이지 않는 차이를 보임. 무개식 삼각투창고배는 구연단부 내연에 뚜껑받이로 보이는 홈이 만들어지며 대각의 돌대가 완전히 소멸되는 특징을 보임. 소성에 있어서도 다른 기종과는 달리 급격한 변화를 보여 불량한 상태를 보임.

수평구연호는 구연부의 형태가 일정한 면을 가지고 수평을 이루는 기형적 특징으로 서남부가야권(사천, 고성, 진주)의 대표적인 기종 중의 하나임. 발형기대는 구연부의 수평화라는 특징과 함께 강한 돌대의 사용과 밀집파상문·열점문의 사용 등에서 특징적인 요소를 보이고 대각의 각기부가 축소되며 대각하방의 곡절상 역시 특징적 임.

통형기대는 특별한 장식이 없는 단순한 영태로 다른 지역의 기대에 비해 수발부가 간략화된 특징이 보이며, 삼각투창의 배치와 문양 시문에서 특수성이 보임. 그리고 통형기대와 조합되는 단경호는 소형으로 동체에 격자타날이나 평행타날이 이루어지며 저부는 평저를 띠는 것이 특징임. 광구장경호는 종래 이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신 기종으로 경부의 중위에서 굴절하며 1~2조의 돌대가 돌려지는 특징을 보임. 이는 백제지역에서 보이는 귀때단지 또는 광구호 계통의 자료와 형태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여 광구호의 기원은 백제지역의 토기문화에서 찾을 수 있음. 개는 드림이 곡절상을 이루며 꼭지가 두툼하게 처리되는 점과 신부의 문양이 열점문을 이루는 특징을 보임.[19)]

□ 소가야 주제공연 제작 공연

❍ 고성군의 역사적 바탕인 소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소가야 브랜드 공연작품을 제작하여 소가야문화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함

❍ 소가야문화제의 킬러콘텐츠로 소가야 관련 주제를 바탕으로 주제공연을 제작하

18) 박승규, 「가야토기양식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2007의 202쪽.
19) 전게서 195~197쪽.

여 송학동고분군 야외에서 공연함. 이는 다른 많은 축제에서도 시도하고 있는 축제 콘텐츠로 지역민과 방문객에게 소가야를 알리고 재미와 흥미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행사콘텐츠가 됨

❍ 소가야의 성장, 발전, 멸망, 대외 철의 교류, 중개무역, 사신접견 등의 소재를 창의적으로 스토리텔링하고 공연작품화 함.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지역 아마추어 동호인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전문기획가와 전문배우, 군민이 모두 함께 만드는 공연으로 축제의 메인이벤트화 함

(그림5-4) 뮤지컬 공연 사례

자료: 김해가야문화축제 홈페이지(http://www.gcfkorea.com)

참고: 소가야의 대외교류

소가야는 일찍부터 남강수계와 남해안을 이용한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 발전하였는데, 특히 금관가야가 쇠퇴한 이후 이를 대신할 교역항으로 남해안 일대가 부상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6세기에 접어들면서 소가야·대가야·신라·백제·왜 등 각국 간에 국제적인 교류·교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다수의 외래계 문물은 그러한 흔적으로 생각됨. 소가야 지역에서 발견되는 외래계 문물은 소가야와 주변제국의 교류 또는 교섭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소가야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 발전하였음을 뒷받침해줌.

6세기 초~6세기 후반 전엽 대가야의 지역성을 상징하는 최상급에 속하는 장식마구가 고성 송학동 고분에서 출토되었는데, 대가야의 확산 또는 진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 6세기 전엽 대가야는 섬진강 유역에서 백제와의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되고 이를 대신할 교역로와 교역항으로 남해안의 고성지역으로의 진출이 필요했을 것임.

이에 소가야와의 교섭을 위해 위세품을 전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대가야와 소가야의 동맹관계를 통해 남해안으로 이어지는 교역로와 교역항을 이용했을 것으로 봄.
6세기 전엽~6세기 중엽 전반 6세기대에 들어서서 본격화된 대가야의 남해안 고성 방면으로의 진출은 6세기 전엽 이후가 되면 중심지인 송학동을 넘어 주변의 율대리와 내산리로 확산됨. 참고로 6세기 전엽 송학동고분군에서 백제계의 원환비 출토와 신라식 대부장경호와 컵형토기, 일본의 오키나와산 조개껍질로 장식한 사각패주운주와 유공광구소호 등이 출토됨. 이를 통해 소가야는 주변 제국들과 다원적인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20]

□ 소가야 문화체험프로그램-어린이 대상

❍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소가야 역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축제 참여를 제고

❍ 분구묘 제작, 토기제작, 무구류 체험, 철제작 체험, 의복 체험, 유적 발굴현장 체험, 고성군 역사유적 AR 및 VR 체험, 송학동고분군 드론 체험 등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역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토록 함

(그림5-5) 체험프로그램 사례

자료: 김해 가야문화축제 홈페이지(http://www.gcfkorea.com)

나. 고성 민속과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 진행

❍ 고성군이 자랑하는 고성오광대나 고성농요는 이미 잘 알려져 있어 축제행사시 주요행사로 계속 공연되어 오고 있음

20) 류창환, 『6세기대 가야와 주변제국』, 「마구로 본 6세기대 소가야와 주변제국」, 제14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김해시·김해문화원, 2008의 13~26쪽.

❍ 고성군의 전통 민속 중 지역의 색채가 잘 묻어나고 앞으로 보존과 전승이 시급한 대표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축제 방문객에게 직접 참여하여 배우고 알게 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 현재 타 지역이나 기존의 축제행사에서 민속체험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으나 내용상 대부분 전통문화의 단순한 놀이나 체험행위에 머물고 있음

□ 이당마을 상엿소리 체험

❍ 상여는 시신을 싣고 장지까지 옮기는 도구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메고 힘을 합쳐 무덤까지 운반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선소리꾼의 소리를 받아 여러 사람이 함께 후렴을 부르는 노래가 '상엿소리'임. '상엿소리'는 죽은 자와 산 자를 하나로 묶어주면서 장례 의식을 성스럽게 함과 동시에 망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함[21)]

❍ 이당마을의 상여(어우림)소리는 지금부터 약30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지역의 소중한 민속자원임. 이 민속자원을 소개하고 축제의 콘텐츠로 적극 활용함

❍ 유사한 좋은 예로, '횡성회다지소리'를 들 수 있음. 이 횡성회다지소리는 문화재청의 생생문화재 사업 시행과 관련 축제 등을 통해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잘 활용하고 있음

사례; 횡성회다지소리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

❍ 회다지소리는 인간의 일생 중 가장 마지막 단계를 정리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음. 일생의례에서 죽음과 관련된 장례풍습에는 장례의식요가 따르는데, 이 노래는 의식에 따르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상여를 운반하고 무덤을 다지는 노동요이기도 함. 의식의 절차 마지막에 부르는 회다지소리에서는 다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노래하여 죽음에 이은 새로운 삶, 즉 삶과 죽음의 연결고리를 확인시켜 줌. 한평생 장수하고 죽음을 맞는 노인의 경우 호상이라 하여 슬픔만 보여주었던 것이 아니라 상여꾼들의 신명을 끌어내 또 다른 축제의 장을 만듬. 회다지소리는 죽음의 미학이 승화된 염원의 노래임[22)]

❍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의 회다지소리는 1984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최고상)을 수상하였고, 1985년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고 정금민속관을 건립함. 또한, 1986년 정금마을이 회다지소리 전승마을로 지정되고 정금민속보존회를 조직함.

21)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한국민속문학사전-민요·소리편』 , 2013의 289쪽.

이후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의 축제인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음

❍ 횡성회다지소리는 문화재청 후원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을 2009년부터 실시하여 2012년까지 시행하였는데, 2009년과 2010년에는 2년 연속 우수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함

(그림5-6) 횡성 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

자료: 횡성군청 홈페이지(http://www.hsg.go.kr/tour)

□ 오동마을 길쌈 일소리 체험

❍ 고성 오동마을은 마을시조가 1658년에 입촌한 달성서씨 집성촌으로 현재도 100여 세대가 살고 있음. 현재까지 길쌈전통이 잘 계승되어오는 마을임. 길쌈은 농경시대에 가정 의복의 자급자족은 물론 생활비용 조달을 위해서 행해져오는 가내수공업으로, 오동마을은 옛 조상들의 삼베제조 과정을 잘 계승·전승하고 있는 마을임. 이 길쌈을 할 때 부르는 일소리가 전승되고 있음

❍ 오동마을은 2005년 마을노인들을 주축으로 “오동길쌈소리연구회”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오동길쌈일소리”라는 책자를 발간했으며, 2005년 경상남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고성군 대표로 출연하여 장려상을 받았음. 이후 연구회를 중심으로 고성의 길쌈 일소리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마을 주민의 고령화로 인해 전승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23)]

❍ 이에 고성 길쌈 일소리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 소가야문화제 축제행사 콘텐츠로 포함하여 다양한 홍보와 함께 전승의 맥을 계승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

22) 횡성군청 홈페이지(www.hsg.go.kr/tour)
23) 고성군, 『고성군지』 3권, 2015의 562쪽.

❍ 참고로, 고성 오동길쌈 일소리의 과정은 삼밭매기소리→ 삼잎치기소리→ 삼곶소리→ 삼째기소리→ 삼삼기소리→ 물레소리→ 베나르기소리→ 베날기와 매기→ 베짜기→ 뒤풀이 순으로 구성되어짐[24]

❍ 체험프로그램은 이중 일부 쉽고 따라하기 좋은 부분을 발췌하여 시연자가 시연하고 방문객이 소리를 따라 배우고 체험토록 내용을 구성하여 진행함. 마을 주민이 시연자로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축제의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음

(2) 주민참여 프로그램 강화

□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의 축제참여 강화

❍ 앞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2015년 말 현재, 경남 전체 외국인 수 82,316명의 2.3%인 1,891명이 고성군에 거주하고 있음

❍ 이들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정 역시 고성군민으로 이들에게 소속감과 유대감을 심어주고 이들이 가지는 다양한 문화적 색채를 지역문화 발전의 한 동력으로 삼는 일도 중요함. 이에 소가야문화제 행사시 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문화 축제프로그램이 필요함

❍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은 타 지역 유사축제 사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음. 소가야문화제 행사 프로그램 속에 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함

❍ 다문화가정 참여 행사프로그램으로는 “다문화 음식 박람회”, “민속공연”, “다문화 국가별 미니 올림픽(체육대회)”, “다문화가정 농악 놀이 공연” 등이 가능함

❍ 다만, 이들을 위한 분리된 독립 행사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일반 군민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다른 군민과 같이 호흡하고 화합하는 형태가 더욱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역시 요구됨

24) 고성군, 『고성군지』 3권, 2015의 562쪽.

(그림5-7) 다문화 프로그램 사례

❍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역 장애자들을 위한 행사프로그램 역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함. 간단한 “간이 운동회”나 장애인 가족 친선 및 참여 행사를 기획하고, 특히, 이들이 축제를 자유롭게 관람하고 즐길 수 있도록 축제 행사장를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시설로 보강하여 설치함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방문객 체험프로그램

❍ 최근 축제의 경향은 축제 방문객이 단순히 관람객의 입장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지향하고 있음. 이에 소가야문화제 축제도 주민이나 방문객 참여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해야 함

❍ 각종 민속놀이 체험, 오광대놀이 체험, 농악체험, 공예체험, 창작 허수아비 제작이나 벼베기 등의 농경체험 등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마련함

(그림5-8) 방문객 체험프로그램 사례

□ **지역 문화예술 동호회 전시 · 공연**

❍ 최근 생활문화 활성화에 따라 많은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호회가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이들을 축제의 장으로 유도하여 축제행사를 다양화하고 이들에게 발표·공연의 장을 제공함

❍ 악기, 그림, 붓글씨, 사진, 연극, 공예 등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관련 전시 및 공연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문화 활성화 및 주민 축제 참여도 제고 효과를 거둠

❍ 참여형태는 지역 문화예술 동호회의 순수 발표회 또는 동호회별 경연대회 형식으로 진행 가능함

(3) 지역 홍보 및 이벤트 프로그램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간공연 행사 진행**

❍ 소가야문화제의 개최 효과 중 중요한 부분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임. 이는 축제 관람을 위해 외부에서 찾아오는 방문객과 지역민이 축제 향유 활동에서 파생시키는 경제적 행위에 의해 창출됨.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부분 역시 소홀히 할 수 없음. 현재 축제 기간 중 먹거리 장터를 운영 중이나 이와 함께 지역 재래시장의 활성화 도모 문제도 고민이 필요함

❍ 축제기간 중 일부 축제 행사를 고성시장에서 열어 방문객을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유도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토록 함

❍ 이를 위해 지역 또는 전국 문화예술인의 야간 버스킹 공연을 실시하여 방문객에게 야간의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여 재래시장 방문과 숙박체류를 유도함

□ **지역 농수산물 홍보 부스 및 판매장 운영**

❍ 타 지역 축제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성군내 농수산물의 홍보 및 판촉행사를 위한 부스를 설치 운영함

❍ 축제 방문객에게 고성군의 다양한 특산물과 생산물을 홍보하고 현장 판매도 실시하여 지역경제에 일조토록 함

(그림5-9) 지역특산물 홍보부스 사례

자료: 아라문화제 홈페이지

(4) 기존 행사 프로그램의 운영 보완

□ **가장행렬**

❍ 가장행렬의 경우 가장행렬 복식, 소품 등의 정확한 고증문제와 행렬 내용구성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가장행력 계속 시행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폐지가 40.6%, 계속시행 26.4%, 보완후 시행 13.7%로 현재의 가장행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옴

❍ 이에 가장행렬의 폐지도 검토가 필요하나, 그동안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주요 행사로 오랜 전통과 상징성을 가짐을 볼 때 폐지보다는 행사의 내용을 개선하여 계속 시행함이 권장됨

(그림5-10) 가장행렬 사례

자료: 가야문화축제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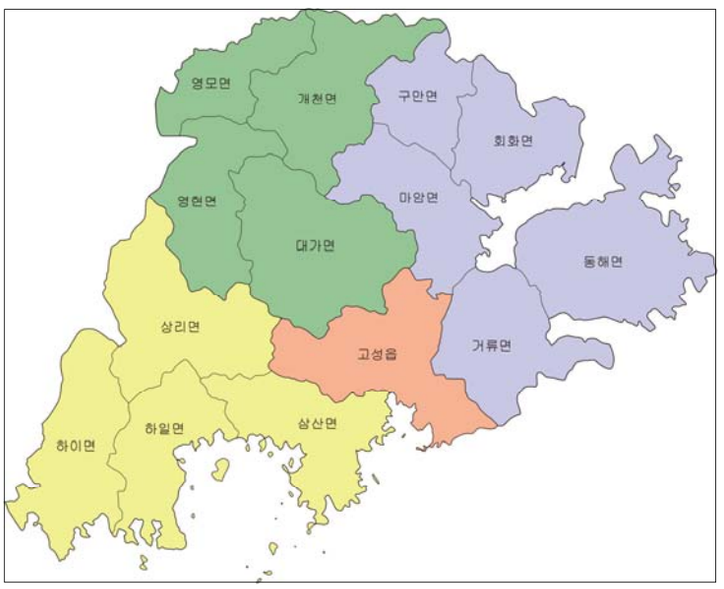
❍ 계속 시행시에는 추가적인 학술 고증을 통해 가장행렬의 의복이나 소품, 행렬 구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과 보완이 많이 필요함

□ 읍면 농악경연대회

❍ 농악경연대회는 오랜 전통을 가진 소가야문화제의 대표적인 행사임.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참여가능 군민의 부족, 연습의 어려움, 경연대회 형식에 따른 심사의 공정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현재의 군내 현실을 반영한 운영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그림5-11) 2016년 소가야문화제 농악경연대회 전경

❍ 이에, 농악대회의 전통은 유지하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그 하나의 대안으로, 출전팀 구성을 크게 나누어 진행하되 농악의 질적 수준을 제고토록 함도 그 대안이 됨. 이는 군민 설문조사 내용과도 부합함



(그림5-12) 농악경연대회 팀 구성 예시 안(고성읍+ 3개면 팀)

❍ 이 경우 읍면 농악팀을 4개 팀, 즉 고성읍과 3개 면권역으로 팀을 구성하여 경연토록 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구성과 운영, 연습여건 등에서 4개 통합팀을 구성·운영하는데 일부 불편함이 예상됨

❍ 따라서 현실적 대안으로서 기존의 읍면 대항 경연대회 형식을 탈피하여 읍면별로 자유롭게 출전하여 경연이 아닌 시연, 즉 공연 놀이마당 형식으로 전환하여 실시함을 적극 검토해야 함. 이 경우 경연형식이 아니라 자율적인 참여방식이 됨에 따른 참여도 저하에 대한 우려도 일부 제기되나, 장기적으로 볼 때 행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복원된 고성농악의 전승·계승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됨

❍ 지역민과 주관단체, 관련 기관간의 협의 후 농악경연대회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토록 권고함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지역축제 실태조사』, 2016.

문화체육관광부,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16.

문화체육관광부, 『2016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2017.

<논문>

류정아, 「지역축제 평가 및 지원체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류창환, 『6세기대 가야와 주변제국』, 「마구로 본 6세기대 소가야와 주변제국」, 제14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김해시·김해문화원, 2008.

박승규, 「가야토기양식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조신규, 「삼국시대 고성지역 분구묘 연구」, 창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하승철, 『경남의 가야고분과 동아시아』 「4-6세기 고성지역 고분문화의 이해」, 2010.

하승철, 「소가야의 고고학적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단행본>

고성군,『통계연보』, 2016.

고성군,『고성군지』, 2015.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한국민속문학사전-민요·소리편』, 2013.

<인터넷>

가야문화축제(http://www.gcfkorea.com)

거창군청(http://www.geochang.go.kr)

고령군((http://tour.goryeong.go.kr)

고성군청(http://www.goseong.go.kr)

군산시간여행축제(http://festival.gunsan.go.kr)

경남신문(http://www.knnews.co.kr)

동래읍성(http://festival.dongnae.go.kr)

부산일보(http://www.busan.com)

백제문화제(http://www.baekje.org)

산청군청(http://www.sancheong.go.kr)

아라문화제(http://araje.or.kr)

아시아투데이(http://www.asiatoday.co.kr)

의병제전(http://www.의병제전.kr)

탐라문화제(http://www.tamnafestival.kr)

통계청(http://kostat.go.kr)

한국관광공사(http://korean.visitkorea.or.kr)

한성백제문화제(http://www.baekjefest.com)

합천군청(http://culture.hc.go.kr)

횡성군청(http://www.hsg.go.kr/tour)

행정자치부(http://www.moi.go.kr)

news1(http://news1.kr)